

향토사료 제33집

횡성 3.1 만세운동 서사시



아, 1919 삼일의 불길

김성수

3.1운동은 1919년 3월1일 서울에서 시작되어 전국지방곡곡으로 퍼져나가  
4월까지 이어졌는데 이를 모두 3.1운동이라 한다.



서울 탑골공원에서 불붙은 3·1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횡성읍에도 3월 27일, 4월1일, 4월 2일에 그리고 서원면 분일리에서는 4월 12일 만세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 강원도 3·1운동의 효시(嚆矢)가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강원도 최초로 횡성에 3·1운동 기념비가 세워졌고 애국의 고장이라 불리게 되었다. 3·1공원, 만세공원, 3·1로, 3·1광장이라는 지명이 붙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은 3·1운동이 그만큼 횡성에서 치열했음을 뜻한다.



횡성문화원장

3월 27일에는 횡성장터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후,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려고 하였지만 낭독이 끝나기도 전에 일본 헌병이 들이닥치자 이에 맞서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모두 체포되어 다음 장날 성공적인 거사를 위하여 남은 애국지사들은 목숨 걸고 더욱 결집하게 되었다.

4월 1일 횡성 장날은 아침부터 대목장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이 장터에 팍 찰 때까지 기다렸다 시작된 만세운동은 저녁 때가 되어 탄압하는 일본 헌병 본거지(헌병분견소)가 있는 군청 뒷산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만세를 부르며 가까이 가자 그들의 짜여진 각본대로 무차별 사격을 가해 총에 맞아 즉사한 사람, 부상자, 매 맞는 사람이 속출하였으며 이어 검거 열풍이 몰아닥쳐 이수라장이 되었다.

총상을 입은 사람까지 매를 맞고 수많은 사람이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거나 태형을 당하였으며 총상을 입고 집에가 사망, 몰래 장사지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탈출하여 해외로 망명 독립운동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독립운동은 목숨 바치는 일이었으며 삶의 파괴와 가족까지도 파멸이었지만 애국지사들은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는데 대의명분을 걸었다.

대한독립만세운동은 100년이 흘러 역사 속에 묻혀 잊혀지고 있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그 때의 함성을 들춰내고 희미한 자취를 더듬어 감성이 주옥같은 언어의 서사시로 향토사료 제 33집을 엮었다. 이를 통하여 3·1정신 계승과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중견시인이며 횡성문화원 회원이신 저자 김성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황성문화원의 향토사료 제33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고 의미를 더하기 위한 황성문화원의 향토사료 제33집 '아! 1919 삼일의 불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사료집 발간을 위해 애쓰신 김성수 선생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우리 황성의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는 황성문화원 박순업 원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료집은 3.1운동의 불길이 전국 각지로 번져가 우리 황성에서도 4.1 만세운동이 불꽃처럼 타올랐으며, 이는 또다시 강원도 곳곳으로 번져가는 도화선이 됐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흔적이 남아있는 3.1운동 기념비와 애국지사들의 묘비, 항일의병 활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영원히 잊지 못할 그날의 숭고한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지키고, 되찾기 위해 투쟁했던 황성의 자랑스러운 애국지사들의 행적을 1세기가 흐른 지금 다시 한 번 조명함으로써, 황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백년 전 그날 황성의 뜨거웠던 역사를 다시 한 번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김성수 선생과 황성문화원 박순업 원장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사료집이 황성을 빛낸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정신이 영원히 기억되길 기대합니다.

황성문화원과 향토사학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성군수

2018, 12.

황성군수 한 규 호

## 축사 | Congratulatory Message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군민들에게 올바르게 전해 주는 『향토사료 제33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새로운 자료 발굴 등을 통하여 역사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노력해 오신 박순업 횡성문화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군의회 의장

또한, 이번 “아! 1919 삼일의 불길”을 주제로 이번 사료집 집필에 힘써 주신 김성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애국의 고장 횡성은 강원도에서 최초로 3.1운동이 일어난 진원지로서 어느 지역보다 거센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4월 1일에는 수많은 군민들이 운집하여 장렬한 태극기의 물결을 이루었고 마을 곳곳마다 거센 만세운동을 펼쳤으며 이 과정에서 일제의 탄압으로 인하여 수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애국의 고장 횡성의 3.1운동과 항일 의병활동을 재조명한 이번 「향토사료 제33집」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바른 역사를 전달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사료집을 발간하기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횡성군의회 의장 변 기 섭



# 글순서

## 1장 3·1의 불씨

- 022 서시
- 026 3·1운동의 불씨
- 028 다시 불러보는 3·1절 노래
- 030 독립선언서
- 032 태화관에서의 기미독립선언
- 034 탑골공원에서의 독립선언
- 036 독립선언의 내용과 취지
- 038 공약삼장
- 039 번저가는 3·1운동의 불씨

## 2장 횡성으로 번진 3·1의 불꽃

- 042 횡성에 불붙은 3·1운동
- 043 번저가는 3·1의 불꽃
- 045 3.27 만세운동
- 047 4.1 만세운동
- 056 4월 2일의 운동
- 058 4월 12일 분일리의 만세운동
- 061 횡성만세운동의 여파

## 3장 3·1 운동의 비문

- 064 3·1운동 기념비의 비문
- 065 3·1운동 기념비 앞에서
- 067 횡성군민만세운동 기념비 비문
- 068 횡성군민만세운동 기념비 앞에서
- 070 애국지사 강달회의 묘비문
- 071 강달회 지사 묘비 앞에서
- 072 애국지사 강성순의 묘비문
- 073 강성순 지사의 묘에 참배하며
- 075 애국지사 김순이 지사의 묘비문
- 076 김순이 지사 묘비 앞에서
- 078 한국 최초의 여성 의병 지도자
- 079 안사람 의병가
- 080 애달픈 노래
- 081 항일투사 류관순 열사
- 083 류관순 노래
- 084 3월 1일의 하늘
- 086 애국지사 최양옥의 묘비문
- 088 구국의 횃불 최양옥 지사
- 090 분일리 독립운동비
- 091 분일리 만만세

## 4장 항일의병의 활동

- 094 한상렬의사 추모비 비문
- 096 그곳에서도 가슴에 태극기를
- 098 강림의병총 비문
- 099 무명용사는 죽어서 말한다
- 101 금대리 의병총 묘비
- 102 아아, 꽃다운 영혼이여, 부디 영면하소서!
- 103 민금호 의병장의 활동
- 105 의병대장 민금호의 전적비문
- 106 산은 옛 산이로되
- 108 꽃다운 목숨 조국에 바친 최인순 의병대장

## 5장 번져가는 만세운동

- 112 민중의 각성과 친일파의 고발
- 113 마른새에 붙는 애국의 불길
- 114 번지는 만세운동의 불길
- 116 평창으로 번진 불씨

## 6장 잊지 못할 그날의 기억

- 122 무언의 저항운동
- 124 삼베 상장을 가슴에 달고
- 126 나무의 족보
- 128 젊음의 가슴속에 번져가는 4·1만세의 불꽃
- 130 한 집안에 3명의 의사
- 132 이슬처럼 사라진 의로운 유생 김치정
- 134 황성만세운동의 불씨가 피어난 곳
- 136 만세운동의 숨은 조역자 위창래 구장
- 137 50여리 먼길을 애국의 일념으로
- 139 태극기 휘날리며
- 140 황성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들
- 142 그 먼 300리길 열정으로 달려간 사람
- 144 78세의 열정 항일의 깃발을 들다
- 146 황성만세운동을 주도한 천도교인들의 활약
- 148 황성만세운동과 유림의 활약
- 150 4·1만세운동과 황성감리교회
- 152 주도면밀한 최종하 대교구장
- 154 애국의 불길에 몸을 태우며.....
- 155 만세운동에 앞장선 서당 훈도

## 7장 영원히 타오르는 그날의 불꽃

- 158 영영포리에서
- 160 다시 삼일공원에 올라
- 162 목숨보다 더 귀한 것
- 163 다시 타오르는 삼일의 불길
- 165 다시 밝히려는 세기의 불길
- 167 님들이시여 오늘의 영광을 보소서
- 169 백년전 그날처럼

## 부 록

## 횡성군의 삼일운동 재현



아, 1919 3.1의 불씨! 아직도 뜨겁게 타오른다.



영원히 기억하리라 이 참상, 다시 태우리라 3.1의 불꽃!



## 횡성군의 삼일운동 재현



백년을 이어 온 3.1정신 앞으로도 영원하리라



3.1정신 이어받아 빛내자 대한민국!

## 횡성군의 삼일운동 재현



횡성 3.1운동은 역사의 햇불로 활활 타리라.



3.1공원 느티나무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다.

## 횡성군의 삼일운동 재현



백년을 이어 온 만세운동



아! 일고 일던 삼일의 불길.

## 횡성군의 삼일운동 재현



님들의 거룩한 뜻 영원히 빛내리.



님들이시여! 오늘의 영광을 다시 보소서.

## 횡성군의 삼일운동의 자취



### 강달회묘역

소초면 둔둔리 진주강씨 선산에 있는 강달회 지사의 묘비. 3.1만세운동때 한 문중에서 강달회, 강도영, 강만형 세분의 애국지사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장렬하게 순국하셨다.

## 횡성군의 삼일운동의 자취



### 강림의병총

강림면 지구에서 민궁호 의병대장과 함께 일제와 싸우다 순국한 무명용사 다섯분의 묘를 한데 모아 그 고귀한 뜻을 기리고자 의총(義塚)을 만듦.

## 횡성군의 삼일운동의 자취



### 강성순의 묘역

횡성 4.1만세운동 때 일제의 총탄에 장렬하게 순국하신 강성순 지사님!  
그 의로운 애국정신은 역사에 길이 남으리라.

## 횡성군의 삼일운동의 자취



### 금대리 의병총

서원면 지구에서 일제와 싸우다 의롭게 숨진 의병 중 무연고 묘 세구를 한데 모아 의병총을 만들고 그 귀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있다.



## 횡성군의 삼일운동의 자취



### 김순이지사묘

주막을 경영하면서 의병의 군자금을 지원했으며 4.1만세운동 때는 선두에서 만세를 부르며 군중을 독려했던 여장부 김순이 지사의 묘역



**의병대장 민금호 전적비**

강림면 월현리 주천강변에 세워진 민금호 의병대장의 전적비 정미의병 때 가장 강력한 전투력으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강림면 일원의 전투에서 43세의 나이로 순국하셨으니 아, 원통하여라. 강물도 슬픔을 안고 흐르는 듯...

## 횡성군의 삼일운동의 자취



### 최양옥묘역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학생의 신분으로 고향 횡성에 내려와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국내외에서 수없이 많은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17년의 옥살이와 모진 고난을 겪어 내고 끝내는 광복을 맞은 우리 횡성의 대표적인 독립투사 최양옥 지사

## 횡성군의 삼일운동의 자취



### 한상열의사 추모비

정미 의병 때 봉기한 횡성 대표적인 의병대장으로 수차례 전공을 세우고 만주로 망명하여 대한의용부 참모와 대한독립단 참모로 활동 중 순국하심, 시인은 만주 길림성 훈춘현에 묻히시어 독립된 조국에 돌아올 수 없으니 안타깝다.



1장 | 3.1의 불씨



## 서시

3.1공원 느티나무는 말하고 있다

3.1공원 입구에 서 있는 횡성 군목(郡木)  
저 우람한 느티나무는 말하고 있다  
지금부터 100년 전 4월 1일  
온 군민이 한데 모여 목이 터져라 외쳐 부르던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만세소리는 천지를 진동했고  
태극기의 물결은 하늘을 가렸던  
울분에 차오르던 민족의 봉기  
밀물같이 흘러가던 만세의 행렬을  
똑똑히 보았노라고

일제의 총탄에 다섯 분의 의사(義士)가  
꽃다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고난을 당했지만  
가슴속에 타고르던 애국의 불길은

더욱 더 번져 갔나니  
그 위대한 민족의 부르짖음을  
똑똑히 들었노라고

저 느티나무의 피부에  
울퉁불퉁 튀어난 웅이에는  
민족의 울분이 분노로 농울져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노라고  
바람이 불 때 마다 가지를 흔들며  
푸른 육성으로 말하고 있는  
저 느티나무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이 온 누리를 덮었을 때  
온 군민이 거리로 뛰어나와  
목놓아 외쳐 부르던 만세 소리도  
다 들었노라고  
역사의 목격자 느티나무는  
아직도 울먹이면서 말하고 있다.

해마다 4월 1일이 되면  
선열의 뜻 높이 기리기 위해  
지금도 그 때처럼 만세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하는 우리의 모습까지도  
저 느티나무는  
나이테 속에 모두 새겨 두었다가  
먼 먼 후손들에게도 말해 주리라

하늘은 언제나 정의로운 쪽에  
승리를 안겨 주고  
피 흘려 나라를 지킨 민족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

우리들이 밝혀 든 민족의 등불  
아, 영원히 타오를  
4.1독립만세  
4.1독립 만만세.





## 느티나무

1919년 4월1일 만세운동은 황성장터에서 시작하여 날이 어두워질 저녁 무렵 황성군청 뒷쪽으로 옮겨갔다. 군청 뒤산에는 탄압을 일삼는 헌병분견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황성군청 뒤쪽 태풍루(지금은 장소가 옮겨져 복원됨)쪽 느티나무 부근까지 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칠 즈음 일본 헌병들의 무차별 사격으로 애국지사들이 이곳에서 쓰러져 순국하였다. 따라서 느티나무는 100년 전의 참상을 보았겠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있다.

## 3.1운동의 불씨

일제의 식민지  
어두운 역사의 틈서리에서  
민족자결주의 불씨가  
조금씩 조금씩 번지더니  
드디어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은 요원의 불길같이  
활활 타올랐다.

거국적으로 일어난 이 운동에  
200여만의 군중과  
1500번의 집회  
사망자 7500여 명,  
부상자 수만 명....

국내뿐만 아니라  
연해주, 간도, 용정, 북간도까지  
그 불씨는 번지고 번졌으니  
이 운동을 어찌 필설로  
다 말할 수 있으랴.

이 운동을 기점으로  
민족자존의 마음이 생겼고  
수많은 애국자와 독립운동가  
의병들이 벌 떼처럼 일어났다.  
3.1정신으로 인해 세계만방에  
우리의 정체성을 알렸고  
끝내는 조국의 해방을 맞이하였으니

아아 3.1정신이야 말로  
영원불멸 우리의 의요 생명이리라.

## 다시 불러보는 3.1절 노래

정인보 선생이 지으시고 박태현 선생이 작곡한  
3.1절 노래를 불러보면  
가슴에 더운 피가 끓어오른다

기미년 삼월 일 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여 이날을 길이 빛내자.

내 눈에는 태극기의 행렬이  
내 귀에는 만세 소리가  
아, 나의 가슴에는 뜨거운 피가  
끓어 넘친다.

우리 민족이 이토록 함께 움직인 적이  
언제 또 있었던가  
밀물 같이 밀려가는  
들불 같이 번져가는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아, 어찌 그날의 그 장엄한 메아리를  
잊을 수 있단 말인가.



## 독립선언서

본문 1600여 자 공약삼장 190여 자로 작성된  
기미독립선언서는 우리 민족의 정의와  
독립의 의지가 집약된 명문장(名文章)이다

독립운동이 계획된 당초에는  
건의서 형식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독립을 요구하기로 했으나  
건의서만으로는 민족자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강력한 독립 의지와 그 당위성을 선포할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첫째 평화적이고 온건하며 감정에 흐르지 않는 문장과  
둘째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조선의 독립이 필요하며  
셋째 민족자결과 자주독립의 전통정신을 바탕으로  
정의와 인도에 입각한 운동을 강조한다는 원칙에 따라  
1919년 2월 초 최남선이 쓰기로 했다

최남선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은밀한 장소에서  
약 3주일 만에 독립선언서를 작성했고 그것을

최린에게 전달, 최린은 손병희 등의 동의를 얻어  
2월 27일까지 민족 대표 33인의 서명을 받았다  
공약삼장은 만해 한용운이 따로 작성하여 대미(大尾)를  
장식하였다

원고는 오세창에 의해 천도교에서 경영하는 보성인쇄소 사장  
이종일에게 넘겨 2월 27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2만 1000장을 인쇄하였고  
인쇄된 독립선언서는 경운동에 있는 천도교 교당으로 옮겨져  
28일 아침부터 3월 1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일제히 배포되었다



## 태화관에서 기미독립선언

독립선언서를 준비한 민족 대표들은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 100여 장을 놓고  
찾아오는 애국동지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오후 2시가 되자  
만해 한용운이 근엄한 목소리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오등(吾等)은 자(茲)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방에 고(告)하여 인류평등의  
대의(大義)를 극명(克明)하며 .....

낭독이 끝나자 우렁찬 목소리로  
만세 삼창을 하였고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최린이 주인에게 총독부에 전화를 걸게 하여  
독립선언식을 한다고 통고하자  
10분도 되지 않아 일경 80명이 달려 와 태화관을 포위했다  
민족 대표들은 독립을 선언하는 한용운의 간단한 식사(式辭)를 듣고  
그의 선창으로 독립만세를 부른 후  
일경에 연행되어 갔다.



## 탐골공원에서의 독립선언

1919년 3월 1일 정오경부터

강기덕, 김원배 등의 연락으로 오전 수업을 마치고 달려 온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과 경성의전학생 전원과 시민들  
5000여 명의 군중들이 운집하였고

오후 2시가 되자 태화관과 보조를 맞추어

의혈청년 정재용이 단상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낭독이 끝나자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군중 속에서 터져 나왔다.

대한독립만세! 만세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다.

공원에는 어느새

서울 시민과 지방에서 고종의 국장에 참배하러 온 사람들까지 합쳐  
수많은 군중이 소리 높여 만세를 불렀다.

공원 문을 나온 군중들은 질서정연하게 시가행진을 하며 만세를  
불렀다.

군중의 일부는 종로에서 광고, 남대문, 의주통(義州通)으로 꺾어  
프랑스 공사관으로 행진했고

다른 일대는 대한문(大漢門) 앞에서 만세 부르고

일부는 일본 군경의 제지를 뚫고 고종황제의 영전을 향해 조례(弔禮)를 행하기도 했다.

다시 저녁 8시 경에는 마포 전차 종점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고 연희전문학교 부근에서는 밤 11시까지도 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 군중은 공약삼장에서 천명한 것 같이 질서를 유지하며 평화적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민족의 독립의지를 표명했지만 일제는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였다.

경찰과 헌병 이외에 보병 3개 중대와 기병 1개 중대를 동원하여 군중을 해산시키려 했다.

이날 민족대표 29명과 주동자 130명이 체포되었지만 열화 같은 독립의 의지는 더욱 더 불타기 시작했다.

## 독립선언의 내용과 취지

기미독립선언문을 통하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민인 민족임을  
선언하였다.

밖으로는  
인류평화(人類平和)를 극명(克明)하며  
안으로는  
민족자존(民族自存)의 정당성을  
영유(永有)케 함이었다.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민족으로  
온 국민의 뜻을 모아서  
민족의 영원한 자유 발전을 위함이니  
우리의 이 거사(擧事)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大勢)이며  
전 인류의 공존동생권(共存同生權)을 위한  
위대한 결정일진대

어느 누가 우리의 뜻을 꺾으랴  
어느 누가 활활 번지는 이 불꽃을  
잠재울 수 있단 말인가.



## 공약삼장(公約三章)

우리의 독립선언이  
평화적 비폭력적인 점을 천명한 것으로

금일 오인(吾人)의 차거(此舉)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의 요구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逸走)하지 말라.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오인(吾人)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나 광명정대하게 하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위와 같았으나  
일제가 무력으로 제지하니  
우리의 시위는 평화적일 수만은 없었다.  
그러나 그 어떤 탄압에도  
우리 민족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 번져가는 3.1운동의 불씨

3월 1일 서울에서 일어난 독립만세 운동은 전국 각지로 번져 나갔는데 그 중에서도 아우내 독립만세 운동을 잊을 수가 없다.

1919년 4월 1일은 아우내의 장날  
3000여명이 참여한 이 운동은  
류관순 열사와 함께 김구응, 조인원, 이백하 등이  
주도적으로 만세운동을 준비했으며  
만세운동 전날인 3월 31일 매화봉에 올라가  
봉화를 올려 불빛이 보이는 여러 곳에  
시작을 알렸다.

4월 1일 오후 1시  
마치 밀물이 밀려가듯 만세운동이 전개 되었는데  
태극기의 물결은 해를 가리고 만세소리는  
천지를 진동했다.

이 소식을 듣고 온 일본 헌병들은 평화로운 시위를 하는  
군중들에게 닥치는 대로 총을 쏘았고  
이 무자비한 공격에 류관순 열사의 부모를 비롯하여

19명이 순국하셨고 30여명이 중상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당했다.  
비폭력 평화적인 원칙에 의거한  
아우내 독립운동에  
이처럼 많은 사상자를 내다니  
일제의 악독함은 도를 넘었다.

때리면 때릴수록  
더 빨리 돌아가는 팽이처럼  
바람이 불면  
더욱 더 거세지는 불꽃처럼  
독립만세 운동은 그렇게 번져갔다.





2장 | **행성으로 변진**  
**3.1의 불꽃**

## 횡성에 불붙은 3.1 운동

횡성은 예로부터 애국충절의 고장  
역사의 갈피갈피 나라가 어려웠을 때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바쳤고  
온 군민이 의롭게 봉기하여  
신명을 다해 나라를 지킨 곳이다.

3.1독립만세의 의로운 봉화(烽火)가 전국적으로 번지자  
우리 횡성에서도 그 불씨를 받아  
1919년 3월 27일, 4월 1일, 4월 2일  
수많은 군중이 만세를 불렀다.

다섯 분의 애국지사가  
일제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진 고문과 태형을 맞았으나  
그 의기는 절대로 꺾이지 않았나니

오, 자랑스러운 우리 군민의 애국정신이여!  
그 의로운 넋은 길이길이  
민족의 횃불로 타오르리라.

## 번져가는 3.1의 불꽃

황성군의 3.1운동은

천도교(天道敎)인들이 주도했다.

국사봉 자락 밑에 해맑은 섬강 지류가

굽이돌아 물결치는 영영포리(永永浦里)

그곳에 근거지를 둔 황성천도교 대 교구

대교구장 최종하를 비롯한 도훈(道訓) 이채일

의사원(議事員) 이동구, 봉훈(奉訓) 신재근, 강만형 등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천도교인 장도훈을 서울로 올려 보내

그곳에 머물고 있는 이동구로부터

독립선언서 40매와 태극기 20매를

구입하였다.

영영포리에 모인 천도교 간부들은  
부족한 태극기를 암암리에 더 그렸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  
황성 전역에는 안경춘, 김인경 등이  
원주 소초면 일원에는 강만형이 담당하여  
배포하였다.

아아, 이제 가슴속에 묻어 둔 불씨를 꺼내  
역사의 마른 숲에 점화(點火)할 날만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 3.27 만세운동

3.27 만세운동은

일본 헌병대의 사전 배치를 알고도  
독립의지를 표명한 만세운동이었다.

3.1운동에 대한 총독의 유시문을

분개한 이들이 이를 찢어 버렸고  
황성보통학교 학생들이 고종황제에 대한 조의(弔意) 표시로  
가슴에 삼베천을 달고 등교한 일로  
일본인들을 긴장하게 하였다.

마치 풀을 건드려 뱀을 놀라게 한 것 같이  
이에 놀란 일본인들은  
일본군 79연대의 기마병들을 대기시키고 있었다.

이날 시위는 천도교인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시내의 모든 상가를 닫고  
300여명의 군중이 만세를 부르며 시위하였으나  
곧바로 헌병대의 기습적 제압으로  
주도자 12명이 구금되자 시위대는 진압되고 말았다.

3월 27일 만세를 부르다 붙잡힌 주동자들은  
모두 형을 받았는데  
신재근, 장도훈, 각 2년  
안경춘 10개월  
강만형 8개월  
윤태환은 6개월의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 만세운동은 다음 장날 4월1일을 위한  
전초전에 불과했다  
민족의 분노는 서서히 끓어올랐고  
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결전의 날을 향해  
그 불길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 4.1 만세운동

4.1만세 운동은 3.27만세 운동의 연장이었다.  
3.27때 부족했던 점을 철저히 보완하기 위해  
천도교인 뿐만 아니라  
감리교 지도자 정해경, 탁영재,  
그리고 청년 지도층과, 횡성보통학교 학생들까지  
연락책으로 함께 한  
온 군민의 의로운 봉기였다.

이번에도 천도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우천면 법주리의 강성순, 안흥리의 김인경, 가좌곡리 김연의,  
하산전리의 조상렬, 갑천면 매일리의 김윤배, 읍상리의 전성수,  
소초면 둔둔리의 강달희, 하영현, 최양옥(갑천면에서 이주함)  
교향리의 추병륜 형제는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였다.

3월 27일 만세 운동 때 장꾼으로 장사하러 왔던  
영월 주천의 김성서와 인제군 서화면의 김운신은  
장사도 버리고 장사꾼으로 가장하여  
마을을 돌아다니며 만세운동 참여를 독려했으며

갑천면 매일리 잔골에서 서당 훈장으로 있던 김치정은  
제자 신건순 등 문하생들을 대동하여 나섰고  
공근면 매곡리 이동구는 태극기를 그려 이웃에 돌리며  
참가를 유도하는 등 4.1만세운동은  
온 군민의 뜻이 한데 모아진 의거였다.

아침부터 장터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얼굴 표정마다 굳은 신념에 차 있었고  
서로서로 손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왜경이나 일본 앞잡이의 눈을 피하며 몰래몰래  
태극기를 나누어 주면서 서로의 의지를 더욱 굳혔다.  
거사 시간은 오후 해가 질 무렵 5시 경  
폭풍 전야 같은 긴장이 온 장안을 안개처럼 내리 덮었다.

저들도 눈치를 채고 폭압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다.  
3.1공원 숲속에는 무장한 헌병을 숨겨 두었고  
언제라도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면사무소의 중요한 서류는 낮에 비상반출을 하였으며  
일본 민간인과 헌병대의 가족은 안전한 곳에 피신 시켰다.



일본인들이 무장을 갖추고 시위 진압을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비록 무기는 없지만 침략자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한다는  
오로지 불타는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군중들  
그들의 가슴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시위는 일제의 총을 피하기 쉬운 어두운  
저녁나절로 하기로 약속하였다.

바로 이날은 일제 상부로 부터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시위를 진압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눈초리도 더욱 더  
살벌하였다.  
그러나 가슴에 불붙는 애국의 열정을  
그 누가 막으랴!  
활화산 같은 민족의 분노를  
어찌 잠재울 수가 있겠는가!

서산의 저녁 해도 산마루에 걸터앉아  
민족의 장엄한 시위를 구경이라도 하려는 듯  
붉은 노을이 섬강물을 붉게 물들였다.

시장의 모든 상점의 문은 잠겼다.  
군중은 여기 저기 집단을 이루고  
장터에서 쌀가게를 하던 조흥렬은  
집을 고치려고 준비했던 서까래를 잘라서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고  
윤석환도 자기 집 장작개비를 주었으며  
그 외 많은 사람들은 막대기 곤봉 등을  
준비하였다.

성난 군중들의 시선은 군청 뒷산 현병 분견소를 응시했고  
드디어 시장통을 나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선두에 섰던 탁영재, 조흥렬, 정두철 등이 만세를 외치자.

온 군중도 일제히 천둥같은 소리로

만세를 불렀다.

대한독립만세!..... 만세, 만세, 만세 .....

그 때 만세를 부른 군중이 1300명이라 하지만

장꾼과 구경꾼도 함께 만세를 불렀으니

그 수는 수천명에 달하리라.

군중들은 군청과 면사무소 게시판을 부수면서  
군청 쪽으로 몰려갔다.  
유일하게 횡성에 있던 일본인 상점 각전(角田)은  
군중에 의해 불타올랐고  
헌병보조원 감독으로 있던 이규화는  
군중에게 매를 맞고 도망쳤으며  
일본군 소도료(小島了) 상등병은 말을 타고 달리며  
호각을 불며 시위대를 막으려 했으나  
최동수가 말에 뛰어올라 끌어 내린 후  
군중의 발에 밟혀 도망쳤으며  
김진대 노인은 담뱃대로 일 헌병을 때리며  
호되게 호령을 하였다.

수천명의 군중은 여기저기에 나누어서  
만세를 불렀다.  
군청을 향해 가는 행렬,  
시장통을 도는 행렬.....  
제 일진이 태풍루 앞에서 만세를 부를 때  
잠복해 있던 헌병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도와 같이 달려가던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대한독립만세! 만세소리와 총소리가 어울려  
마치 천둥을 치는 것 같았다.

시장통에서 만세를 부르던  
황소아줌마 김순이 여사를 비롯한 군중들도  
제 일진과 합세하여 만세를 불렀다.  
날은 어느새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고 만세소리는  
더욱 더 우렁차게 들렸다.  
그 때부터 일본 헌병은 마치 사냥을 하듯  
조준 사격을 하기 시작했다.  
선두에 섰던 수로공부 전한국이 쓰러졌고  
법주리 강성순, 둔둔리의 하영현, 강달회  
매일리의 김치정도 쓰러졌다.  
여기 저기 부상을 당해 피흘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러한 아수라장을 기회로  
헌병과 보조원들은 장터로 내려 와  
군중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아, 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 사냥인가!  
천인공노할 일제의 만행을  
어찌 용서할 수 있을까.

날은 저물고 여기 저기 총에 맞아 신음하던 속에  
탁영재, 김명기, 최동수, 최양옥 등은

간신히 후일을 위해 몸을 피했다  
부상자들도 왜놈에게 잡히어 고초 받기 싫어  
피를 흘리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피살자는 거적에 덮여 면사무소 마당에 방치되었고  
비보를 들은 가족들은 시체를 안고  
대성통곡을 하였다.

둔둔리 사람들은 강달회, 하영현의 시체를 안고  
십여리 길을 등불을 밝히며 돌아갔다.

이 울분을 참지 못한 주민들은  
4월 5일 소초면 평장리 부채고개에서  
박영하, 심의성, 신현철 등  
400여명이 모여 다시 만세를 불렀다.

일제에게 붙잡혀 태형을 맞은 사람은 수없이 많았다.  
태형 90대를 맞고 살이 일그러져  
일 년 동안 병석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상처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등 그 참상은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이날 잡혀 징역을 산 사람은  
천선재 1년형, 정해경 1년 6개월, 김성서 1년 6개월,  
조상렬 8개월, 김윤신 8개월, 등이 있고  
태형만 맞고 훈방 조치된 사람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후에도  
일제의 탄압이 더욱 심했고  
일제는 이들을 강도 또는 폭도로 매도하여  
주민들로부터도 살가운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들에게 인정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제의 감시와 따돌림을 받기 때문에  
인심은 점점 각박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어떤 이들은 고향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후손을 찾을 수도 없는데  
우천면 가좌곡리(현 상하가리)구렁마을에 살던  
김연의는 그 가족과 함께 만주로 떠나  
그 곳에서 독립운동에 생애를 바쳐  
아무도 그 소식을 모르고 있다.

서울에서 중동중학을 다니다 고향에서  
4.1만세 참가했던 최양옥은  
총격의 와중에 느티나무 옆에 쓰러졌다.  
어둠을 틈타 안흥면 상안리 처가에 가서  
처남 안경춘의 체포소식을 알리고  
잠시 피신하는 도중  
난데없이 들이닥친 일경에 체포 되었으나  
일경의 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서  
수갑을 찬 채로 도주하였다.  
그 이후 고생고생 끝에 만주로 가서  
독립군이 되어 활동하였다.

군자금을 모으러 고국에 나왔다가  
전라도 담양에서 붙잡혀 7년의 형을 살았으며  
그 후 공명단 단장으로 망우리 고개에서  
일본 우편물차를 습격하다 또 체포되어  
다시 10년형 옥살이를 하는 등  
온갖 시련을 겪다가 광복을 맞았으니  
아아 , 그 의로운 행적은 길이길이  
우리들 가슴에 남아 애국애족의 귀감이 되리라.

## 4월 2일의 운동

4월 1일 밤까지 만세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잠허가기도 하고  
횡성 장터에서 꼬박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날이 새자  
잠허 간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200여명이 시위를 했다.  
그러나 이날은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당시 헌병분견소장 도변경삼랑(度邊慶三郎)과  
군중 대표 정호봉, 조홍렬과의 사이에  
이규화가 통역을 했는데  
서로의 의견이 달라 옥신각신 하다가  
분견소장의 강경한 태도에  
군중은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군중은 거의 황성 장터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점들을 닫아걸고  
약 이주일 간 상점들을 열지 않고  
무언의 시위를 계속 하였다.

7일에 가서야 군수와 분견소장의 간곡한 요청으로  
상점을 개점했지만  
4월 7일 12시 경 장터 게시판에  
태극기를 높이 걸고 그 밑에  
〈군수를 죽인다. 체포한 사람을 석방하라는〉는  
대자보가 붙는 등  
군중의 분노가 식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 4월 12일 분일리의 만세운동

아름다운 섬강이 휘돌아 가는  
양지 바른 산자락에  
조항, 상촌, 수동, 향산, 등의 마을이  
아담한 부락을 이룬 분일리  
예로부터 학문을 숭상하고  
선비 정신이 드높은  
애국애향의 마을  
1982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원주시에 편입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횡성군 서원면 땅이었다.

만세의 불꽃은 이곳으로 서서히 불기 시작했으니  
향산에 사는 송병기, 성대현, 박민희와  
수동에 사는 이정현이 송병창의 집에 모여  
만세를 부를 것을 결의하고  
주민들 약 50명을 모아  
향산과 수동 사이에 있는 동산에 올라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상촌에 사는 유정근과 이주연, 이종우는  
수동 느티나무 옆 김옥봉의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만세소리를 듣고 수동 사람들을 모아  
합세하여 만세를 불렀다  
삼시간에 마을 전체의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열기에 찬 만세의 불꽃은  
어두운 밤하늘을 활활 태웠다.

마을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만세를 부른 곳은  
이 마을이 처음이리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섬강 건너편 무장리 마을에도 다 들리도록  
목이 터져라 외친 만세소리  
지리적으로 일제의 관권이 미치지 어려워  
단 하룻밤이지만 마치 독립이 된 것 같은  
황홀한 기분으로  
만세! 만세! 대한독립만세!.....

일제에 잡혀가 징역을 치른 사람은  
모두 8명이었는데  
송병기 10개월,  
성태현, 박민희는 8개월  
유정근 7개월,  
이정현, 이두연, 이종우, 김옥봉은 6개월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을 받았다.

매한불매향(梅寒不賣香)  
아무리 춥다해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매화 같이  
매호리 사람들의 그 의로움은  
길이길이 빛나리라.

## 황성 만세운동의 여파

황성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애국의 불씨가 되어 이웃으로 번져나갔다.  
원주 소초면 만세운동은  
황성 4.1만세운동의 연장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평창 등지로 번져  
강원도 전역에 만세운동이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만세운동으로 인해  
독립의 중요함과 민족성 각성을 촉구하게 되어  
그 이후 광복의 그날까지 국내외 곳곳에서  
모진 고난과 탄압을 무릅쓰고  
독립투쟁을 계속하게 된다.

4.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특히 최양옥은 17년간 옥고를 치르면서도  
독립운동을 계속하였고  
황소아줌마 김순이는 주막을 경영해 번 돈으로

독립군자금으로 최양옥을 돕기도 했으며  
감리교 신도 탁영재와 방시순은 <철원애국단>에 가담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활동을 했으며  
신간회, 농민조합, 청년회 활동으로 극일운동을 펴다  
일경에 검거되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탁영의는 2차대전 때 강제로 끌려간 일본군에서 탈출하여  
26군 장개석 군대에 입대하여 중국에서 일본군을 무찔렀으며  
그 후 광복군에서 활동하다 1948년 그리운 고향에 돌아왔다.

어찌 그뿐이라 ! 그 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운 항일정신은  
필설로 다 기록할 수가 없다.



3장 | 3.1 운동의 비문



## 3.1 운동 기념비의 비문

1919년 3.1만세는 한일합방에 항거하는 통분의 함성이요, 자유와 독립을 찾으려는 비상한 절규요,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국권을 계승하려는 당당한 주장이었다. 남녀노소 빈부와 귀천의 구별 없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거대한 불길의 폭발이었다.

그러므로 삽시간에 삼천리 방방곡곡에 번져 하늘이 빼개지고 땅이 흔들릴 듯한 맹렬한 기세였다 이러한 정당한 평화적인 궤기에 대하여 왜적의 탄압은 어찌하였던가.

잔인하고 악독한 살육과 형벌이었다 이 해 3월 27일 우리 황성에서는 수천 군민이 읍내 장터에 모여 장렬한 태극기 물결을 이루었고 잇따라 4월 12일 까지 사이에 각 면마다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부르던 중 하영현, 강달회, 전한국, 강성순 의사는 현장에서 강만형 의사는 옥중에서 왜적의 총칼 아래 순국의 영령이 되고 말았다.

이 숭고한 3.1정신을 이어받아 창간한 동아일보는 유서 깊은 이곳에 이 기념비를 세워 그 거룩한 정신을 만대의 후세까지 길이 받들어 드높이려 한다.

1972년 8월 15일 동아일보사.



## 3.1운동 기념비 앞에서

3.1운동 기념비에 새겨진  
비문을 읽으면  
목이 터져라 외치던 만세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무자비한 일제의 총탄 앞에 쓰러지면서도  
민족자존과 대한독립을 위해  
온 시가를 누비던 태극기  
태극기의 물결이여.....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구별 없이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타오르던  
거대한 불길, 만세운동이여!

그 거룩한 불길 다시 타올라  
3월 27일부터 4월 12까지  
수백, 수천의 군민이 외쳐 부르던  
아아, 대한독립만세!  
황성의 만세운동은  
요원의 불길같이  
강원도 전역에 번지었나니

이 비석 앞에 서면  
가슴에 더운 피가 끓어오른다.  
가만히 눈감고 그 날의 외침소리를  
다시 들어보라  
파도치던 태극기의 물결을  
상상해 보라.

우리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선열들이 지켜 온 이 땅을 위해  
우리는 진정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횡성 만세운동 유적

##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비 비문

기미년 3,4월 민족의 자존을 짓밟으려는 일제에 항거하여 이 고을 모든 백성들은 일어섰다. 성난 분노는 노도와 같았고 거룩한 함성은 뇌성과도 같았다. 태극기는 하늘을 뒤덮고 의기는 하늘을 찔렀다. 1919년 3월 27일, 4월1일과 2일 그리고 12일까지 횡성 장터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 고을 만세운동은 총칼의 탄압도 두려워 하지 않고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향해 달려가는 뜨거운 여정의 시작이요 횃불이었다.

일제의 잔악한 살육에도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고 거래의 분노는 불처럼 타올랐다. 이 운동으로 하영현, 강달회, 전한국, 강성순, 강만형 의사가 순국하고 많은 사람이 붙잡혀 옥고를 치루고 더 많은 사람이 뜨거운 피를 흘리며 오로지 광복과 영광을 위한 씨알로 희생하였다. 이 숭고한 얼과 넋을 기리며 이 비를 세워 영원히 후세에 전하고자 한다.

1984년 11월 22일 횡성군수.

##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비 앞에서

3.1공원에는

2개의 독립만세 기념비가 있다.

1972년 동아일보 신문사가 세워 준

3.1만세 기념비가 있고

1984년에 건립한 또 다른 의미의  
기념비가 나란히 서 있다.

문화공보부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 계획에 따라  
문화재 관리국이 대상지를 엄선한 결과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하게 만세를 불렀던  
바로 이 곳 횡성 3.1공원에  
이 기념비를 세웠다.

우리 횡성군만큼 항일정신이 불타던 고장이  
어디에 또 있으랴?

민족대표 33인 중에도 변절자가 있고  
민족의 지도자 중에도

뜻을 굽힌 사람들이 많지만  
꽃다운 목숨을 잃어 가면서도  
뼈를 깎는 고초 속에서도 독립의지를 불태운  
아아, 위대한 우리들의 선대들이여!

이 비석 앞에 서면  
그날의 외침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날의 그 참상이 눈에 선하다.  
선열들이 흘리신 그 고귀한 피의 댓가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오니  
선열들이시여! 부디 편히 잠드소서.



## 애국지사 강달회의 묘비문

진주 강씨 통정공파 후손인 강달회(사문) 지사께서는 우리 한민족을 한일합방 하는데 대하여 통분을 금치 못하시던 중 1919년 3월 1일 기미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에서 분연 꺾기하여 4월 1일 황성만세운동에 참가하시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주독립의 의지를 당당히 주장하시다 현장에서 왜군의 총에 맞아 장렬히 순국하시었다.

지사께서는 광복된 조국을 보시지도 못하고 한스러운 삶을 마치셨기에 이러한 독립 항쟁 정신은 우리 고을의 명예이므로 그 뜻을 기리어 묘역을 단장하고 지사의 거룩한 자주독립 정신과 숭고한 얼을 후세에 전하여 받들고자 합니다.

1990년 10월 30일 원주문화원

## 강달회 지사 묘비 앞에서

원주시 소초면 둔둔 2리에 있는  
진주 강씨의 선산(先山) 아담한 산자락에  
강달회 지사의 묘비가 세워져 있다.

박찬언 사학자가 글을 쓰고  
박문교 서예가의 글씨를  
전선교 조각가가 정성스레 돌에 새긴  
이백사십 여 글자의 비문을 읽어보면  
글자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  
우리들 가슴에 역사의 교훈으로  
각문(刻文) 되는 듯하다.

황성 4.1만세운동에서 독립만세를 외치시다.  
잔악한 일제의 총탄에  
장렬하게 숨을 거두신  
강달회 애국지사님!  
51세의 아까운 나이로 돌아가셨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는 천년만년  
그 이름 길이 빛나리라.

## 횡성 만세운동 유적

# 애국지사 강성순의 묘비문

공의 휘(諱)는 성순(聲順)이요 자는 사윤(士允)이며 관은 진주이시다. 갑자년에 부친 휘(諱) 호원(浩遠)과 해주 오씨 사이에 독자로 출생 인생의 삶을 다하지 못한 채 젊은 나이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열사이시다.

공은 시대적으로 춥고 배고픈 그리고 자유마저 빼앗긴 일제 통치하의 억압된 세파속에서 나라 잃은 설움을 금할 수 없는 세상을 살으셨다. 각지에서 독립을 위한 독립선언서가 배부되고 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을 때 공이 살고 있는 횡성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횡성 독립만세 운동이 있기까지 공은 동분서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사랑하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어른이시다. 더구나 횡성 3.1운동은 천도교에 의해 추진되었던 바 천도교인이었던 공은 최종하, 윤태환, 탁영재, 전성수, 최동수 등 십 수명과 함께 그 활약이 대단한 것으로 특히 공이 서거하신 4월 1일의 만세 운동은 약13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니 그 의기는 참으로 대단했으리라.

일본군의 모진 탄압에 짓밟힌지 수십 년 동안 온갖 고생과 역경을 이겨내며 참아왔던 백의민족의 운동으로 잃었던 나라를 찾기 위함이요 일제를 몰아내기 위한 한 맺힌 투쟁으로 독립만세를 불렀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공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비명에 가셨지만 후손들의 평온한 삶을 영위케 하기 위하여 몸을 던지셨던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후손들은 선열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렇게 서광을 누리지 않는가. 길이 후손에 물려줄 기상이요, 영원한 만세에 빛이 되시리라.

부디 고이 잠드소서!

\* 공의 묘소는 우천면 정암리 잣나무골에서 1989년 11월 1일 우천면 법주리 바라골로 이장되었음

1989년 11월 1일



## 강성순 지사의 묘에 참배하며

우천면 범주리 바라골 양지쪽 산자락에  
영면하시는 강성순 지사 묘비 앞에  
삼가 머리 숙여 참배한다.

1919년 4월 1일  
1300여명의 군중을 선도하여  
횡성만세운동을 이끄시다가  
일 헌병의 흉탄에 장렬히 목숨 바친  
강성순 애국지사님  
그 의기와 충절은 우리 가슴에  
길이 남으리라.

강원도에서 제일 치열했던  
횡성 4.1만세운동은  
애국의 불꽃이 되어  
모든 사람들 가슴 가슴에  
활활활 번져 갔나니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그 외침소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조국 위해 목숨 바친  
거룩한 영령 앞에  
들꽃 한다발 올리오니  
부디 영면하소서.



## 애국지사 김순이 지사의 묘비문

여사께서는 1878년 10월 15일 경주읍 서부리 김해김씨 문중에서 태어났다. 1898년 10월 19일 안흥면 안흥리에서 박영화 씨와 결혼하여 황성군 옥동리와 갑천면 구방리를 거점으로 가난과 세파에 시달리면서 애국의 일념으로 생활하시다가 1952년 12월 19일 한 많은 삶을 마치셨다. 기골이 장대한 여사(일명 황소아주머니)께서는 뜻한 바 있어 당시 천대 받던 주막을 경영하면서 푼푼이 모은 돈으로 애국지사이신 갑천면 화전리 최양옥 지사의 독립운동을 도우셨고 특히 황성만세운동 때에는 자신의 주막을 모의 장소로 제공하였고 하영현, 강달회, 강성순, 전한국, 강만형 의사가 순국하시고 많은 지사가 투옥되었던 4월 1일 황성장날 독립만세운동 때에는 일경에 쫓겨 장터 술집에 숨어 든 동지를 규합하여 진두지휘하다 투옥됨으로 황성만세운동을 성취시킨 전설적인 여인이다.

자손은 절손되고 난중에 소실된 기록을 챙기는 후사가 없어 찬연한 공적에도 보훈의 대열에 들지 못하고 갑천면 구방리 공동묘지에서 실묘의 지경에 이르니 실로 애석함을 금할 길이 없던 바 다행히 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군민의 뜻이 있어 이곳에 여사의 드높으신 애국의 뜻을 기리며, 후세에 귀감을 삼고자 이 비를 세운다.

1990년 4월 27일 황성군민 일동.

## 김순이 지사 묘비 앞에서

갑천면 구방리 한치 저수지 앞  
아담한 동산에서 영면하시는  
애국지사 김순이 여사 묘비 앞에  
삼가 머리를 숙인다.

가난과 온갖 세파를 홀로 이기시면서  
오직 애국의 일념으로 살아오신  
김순이 지사께서는  
주막을 경영하여 푼푼이 모은 돈으로  
최양옥 지사의 독립운동을 도왔고  
1919년 4월 1일 황성만세운동 때는  
장터 주막에 숨어 든 동지를 규합하여  
선두에 나가 군중을 지휘하신  
기골이 장대한 여장부였다.

나라를 위하는 일에  
어찌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의 구분이  
따로 있으랴  
여인의 몸으로 분연히 일어선

김순이 지사의 의거야 말로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애국의 횃불 높이 든  
류관순 열사와  
춘천에서 의병활동을 도운 윤희순 지사와 함께  
여성 항일투사로서  
그 이름 길이 빛나리라.

묘역의 무궁화 울타리엔 해마다  
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 꽃송이 송이마다  
김순이 지사의 의로운 마음도  
애국을 기리는 꽃씨로 맺혀지리라.



## 한국 최초의 여성 의병 지도자

김순이 지사의 묘역에 서니 춘천지역에서 여인의 몸으로 의병활동을 했던 윤희순 의사와 아우내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부르시던 류관순 열사가 생각 난다. 특히 윤희순 의사가 쓰신 독립정신을 일깨우는 노래 중〈안사람 의병가〉와 〈애달픈 노래〉가 문득 떠오른다.

윤희순 의사는 한국 최초의 여성 의병지도자로 1860년 경기도 영주군 구지면(현구리시)에서 윤익상과 평해황씨 사이에 큰딸로 태어나 16세 되던 1876년 춘천 의병대장 외당 류홍석의 장남 류제원과 결혼하였고 의병활동의 가계를 이어 의병운동에 뜻을 두게 된다.

일본이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1896년 단발령을 발표할 무렵 〈안사람 의병가〉 등 여러 편의 노래를 지어 항일 의식을 불러일으켰으며 여성들도 구국활동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다. 1907년 정미의병이 일어나 시아버지 류홍석이 의병대장이 되어 싸울 때 춘천시 남면에서 30여명의 부녀자를 동원하여 군자금을 모아 지원했고 쇠와 구리 등을 구입하여 화약과 탄약을 만드는 등 항일투쟁을 전개하다. 1910년 한일 합방후 1911년 시아버지 류홍석과 남편 류제원을 따라 중국으로 망명 그곳에서 항일 인재 양성 등 독립운동을 계속하다 1935년 8월 1일 혜성현 묘관둔에서 생을 마치신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고 2008년 9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

# 안사람 의병가

윤희순

아무리 왜놈들이 강성한들 우리들도 뭉치면  
왜놈 잡기 쉬울세라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쏘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 있나  
우리도 나가 의병 하리 나가 보세  
의병대를 도와주세  
금수에게 붙잡히면 왜놈 시정 받들쏘냐  
우리 의병 도와주세  
우리나라 성공하면 우리나라 만세로다.  
우리 안사람 만만세로다.

## 애달픈 노래

윤희순

애닭도다 애닭도다 형제간에 싸움이요  
부자간에 싸움이라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우리 조선 백성들이 이렇듯이 어두운가  
제 임금을 버리고서 남의 임금 섬길쏘냐  
우리 조선 버리고서 남의 나라 섬길쏘냐  
애닭도다 애닭도다 우리 조선 애닭도다  
자기 처를 버리고서 남의 처를 사랑하니  
분한 마음 볼 수 없어 가슴을 두드리니  
내 가슴만 아프도다 제 한 목숨 버릴쏘냐  
나도 나가 의병하세 의병대를 도와주세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의병대를 도와주세.



## 항일투사 류관순 열사

류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 16일 충남 천안군 동면 용두리에서 아버지 류중권과 어머니 이소제 사이에 둘째 딸로 태어나 1916년 미국인 여자 선교사 엘리스 샤프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에 교비생으로 편입된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온 국민이 만세운동을 전개할 때 이화고등보통학교 학생인 류관순은 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담을 뛰어 넘어 시위대열에 합류하여 만세를 불렀고 3월 5일 학생들이 주도하여 남대문 역에서 열린 제2차 대규모 시위에서는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4월 1일 천안 아우내 장터의 만세운동 때는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운동 대열의 선두에서 참여하다 잔혹한 일제의 학살로 부모를 모두 잃었고 주동자로 붙잡혀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옥 속에서 계속 만세를 불렀다.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을 맞아  
감옥에서 다시 독립만세를 선도하다.  
모진 고문을 받은 끝에  
결국 1920년 9월 28일 꽃다운 나이로  
숨을 거둔다.

**류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한 말**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나라를 잃은 그 고통은 견딜 수 없습니다.

## 류관순 노래

아동문학가 강소천이 지으시고 작곡가 나운영이 곡을 붙인 동요를  
마음속으로 불러 보면 류관순 열사가 더욱 더 그리워 진다.

삼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 보며  
류관순 누나를 생각 합니다.  
옥 속에 갇혀서도 만세 부르다  
푸른 하늘 그리며 숨이 켜대요.

삼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 보며  
류관순 누나를 불러 봅니다.  
지금도 그 목소리 들릴 듯 하여  
푸른 하늘 우러러 불러 봅니다.

\* 박두진 시인은 추모하는 마음을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하기도 했다.

## 3월 1일의 하늘

박두진

류관순 누나로 하여 처음 나는  
3월 하늘에 뜨거운 피무늬가 어려 있음을 알았다.  
우리들의 대지에 뜨거운 살과 피가 젖어 있음을 알았다.  
우리들의 조국은 우리들의 조국  
우리들의 겨레는 우리들의 겨레  
우리들의 자유는 우리들의 자유이어야 함을 알았다.

아,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류관순 누나로 하여 처음 나는  
우리들의 가슴 깊이 피 터져 솟아나는  
비로소 끓어오르는 민족의 외침을 용솟음을 알았다.  
우리들의 억눌림, 우리들의 비겁을  
피로써 뚫고 일어서는  
절규하는 깃발의 뜨거운 몸짓을 알았다.

아, 류관순, 누나, 누나, 누나, 누나  
언제나 3월이면 언제나 만세 때면  
찾아 앉는 우리 피에 용솟음을 일으키는  
류관순 우리 누난 보고 싶은 누나  
그 뜨거운 불의 마음 내 마음에 받고 싶고

내 뜨거운 맘 그 맘속에 주고 싶은  
류관순 누나로 하여 우리는 처음  
저 아득한 3월의 고운 하늘  
푸름 속에 펼쳐이는 피 깃발의 외침을 알았다.



## 애국지사 최양옥의 묘비문

지사는 1893년 12월 5일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화전리에서 출생, 1913년 4월 3일 원주보통학교에 입학하시어 1917년 졸업하시고 동년 3월에 서울 중동중학교에 입학하시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민족정신과 항일정신이 투철한 지사는 독립투쟁에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인 강원도 횡성으로 내려가 동지를 규합한 뒤 천도교인들과 합세하여 횡성 장날에 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지사는 일경의 추적을 피하여 모진 고생을 겪다가 상경한 후 만주로 건너가서 이동녕, 박은식으로부터 군자금 모금의 지령을 받고 서울에 와서 만주농림주식회사를 창립하여 운영하던 신덕영을 만나 1920년 서울 소격동 신덕영의 집에서 신덕영, 노영규 등과 대한청년단을 조직하고 지사는 농림회사의 주식 모집원으로 가장하고 전남 각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었다. 지사는 다시 신덕영, 노기준과 같이 전남 담양군 및 곡성에서 군자금 모집에 전념하던 중 11월 5일 자동차를 타고 광주로 가다가 일경에게 붙잡혀 광주지방법원에서 7년의 연도를 받고 대구 형무소에서 복역 하다가 1926년 출감하였다.

출감 후 귀향하니 부친은 4개월 전에 별세하셨고 가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그 형편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였다. 조국광복에 몸을 바친 지사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다시 고국을 떠나 만주로 망명하여 중국 산서성 태원부에서 안창남, 이용희, 등 여러 동지와 공명단을 조직한 뒤 단장에 피선되었다. 1927년 안창남, 신덕영, 김정연 등과 북만(北滿)에서 독립군 비행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비행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그 기금 모집과 서울에 공명단 지부를 설치하고자

1929년 서울에 잠입하여 첫 번째 행동으로 동월 20일 서울 교외 망우리에서 춘천으로 가는 일본 우편물 소송차를 권총으로 습격하여 정차 시켰다. 그리고 차 속에 실었던 우편낭을 뒤져 많은 돈을 빼앗은 후 일인의 우편물은 모두 태웠다.

이곳을 지나던 차량을 모두 정차시킨 뒤 운전수와 승객들의 눈을 가리고 산골 속으로 끌고 가서 꿰어앉히니 그 수효 70명이었다. 이들을 거기에 두고 행장을 수습하여 강원도 쪽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이 급보를 받은 일경은 경기, 황해, 강원, 충북, 충남, 등 5도의 일경과 일본군 제 19사단의 지원을 받아 천마산 양주를 포위하며 지사의 일행은 이를 대항하여 망우리고개와 마치고개를 넘나들면서 약 1주야를 악전고투 하다가 탄환은 떨어지고 배는 고파 더 싸울 수 없어 일경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 후 경성지방법원에서 최양옥 지사는 징역 10년 형, 김정연은 징역 9년, 이 선구는 징역 6년 형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이선구는 옥중에서 병사 되었고 지사는 10년이란 긴 세월을 복역하다 만기 출옥하였다. 1945년 8,15광복 후에는 서울 형무소 서무과장으로 2년간 근무하다가 인천형무소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였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다.

최양옥 지사의 위대한 애국혼과 그 업적을 기리고자 군민의 뜻을 모아 이 비를 세운다.

1984년 4월 15일 황성군수 세움

## 구국의 햇불 최양옥 지사

갑천면 대관대리  
삼거리 가는 국도 옆에 서 있는  
최양옥 지사 추모비 앞에 서면  
가슴에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며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갑천면 화전리에서 태어나신 지사는  
기미년 3.1운동 당시  
서울 중동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3.1운동의 의로운 열기 속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낙향하여  
황성 4.1만세운동의 주역이 되었으며

왜경의 추적을 피해 머나 먼 만주로 가서  
애국의 일념을 불태웠나니  
대한청년단, 공명단 등 애국단체에 몸담아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중  
독립군 군자금 모집을 위해 다시 조국에 돌아와  
조국의 광복을 위해 젊음을 다 바치신  
아아, 의로운 독립투사  
최양옥 지사님!



대구형무소에서 7년  
서대문형무소에서 10년  
그 외에도 수많은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구국의 햇불 높이 밝히신  
한결같은 지사님의 애국 투혼은  
우리들 가슴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애국의 불길로 타 오르고 있다.

추모비에 새겨진 비문을 읽으며  
그날의 지사님 같이 소리쳐 불러본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만세!



# 분알리 독김은동비

비석(碑石) 옆면에 새겨진 비문(碑文)

나라잃은 민족에  
서름이복바쳐  
힘것 워 첫노라  
대한독립만세를  
반만년 역사속에  
치옥의 한쪽이여.

\* 돌에 새겨진 원문을 그대로 썼음.

이 비문은  
맞춤법, 띄어쓰기가 틀렸다.

우직하고 직선적 표현  
그 서툴고 부족함이  
더 가슴을 짠하게 한다.

유려한 표현의 문장은 아니지만  
무엇이 이토록  
가슴을 뜨겁게 할까?  
이 비문 속에는  
원초적인 겨레의 아픔,  
그 뜨거운 피가 분노로 치솟아  
아우성으로 들린다.  
우리들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한다.

## 분일리 만만세

서원면 분일리 한 마을의 힘만으로 부른  
독립만세운동  
이 얼마나 대범하고 자랑스러운가  
1919년 4월 12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만세!  
민족의 울분이 만세운동으로 터져 버린  
우리들의 외침

만세 소리는 밤하늘로 퍼져 나가고  
겨레의 가슴속으로도  
뜨겁게 뜨겁게  
번져 나갔으리라.

이곳엔 친일과도  
일본의 앞잡이도 없었다  
애국심으로 뚝뚝 뭉친 마을  
애국 애향의 마을  
우리는 님들의 그 의기(義氣)  
가슴에 다시 새겨야 하리라.

지금은 매호리라 부르는 이곳  
매한불매향(梅寒不賣香) 이란 말처럼  
아무리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매화의 지조가 전해오는 이 마을  
만세, 만세, 매호리 만만세.



4장 | 향악 의병의 활동

## 한상렬 의사 추모비 비문

한상렬 의사는 1876년 4월 2일 황성군 우천면 문암리에서 부친 한동수 공과 모친 연일 정씨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선생은 청소년 시절에 일제의 침략에 의한 주권 상실과 고종 32년 1895년 을미 의병을 보고 애국사상과 항일사상을 품게 되었다. 광무 9년 1905년에 일제의 병탄(併呑) 야욕이 노골화 되고 을사조약을 체결하자 이에 분개한 민영환 조병세 등 자결하는 인사들이 속출하더니 다음 해에는 제2차 의병인 병오의병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의 의병은 충청도의 민중식 선생과 전라도에 최익헌 선생이 중심이 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다음 해인 광무 11년 1907년에 해외밀사 사건을 구실로 일제가 고종황제를 폐출하고 순종을 즉위시킨 후 정미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한국 군대를 해산시키게 되자 마침내 전국적인 의병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를 3차 의병 또는 정미의병이라 부른다. 이전에 을미의병이나 병자의병이 대체로 노장층의 유림 지도자가 중심이 되었는데 비하여 정미의병은 해산된 구한국 군대가 중심이 된 것으로 군사에 밝은 청년들이 앞장을 서는 의병이었기 때문에 왜병의 피해도 전보다는 훨씬 큰 것이었다. 그런데 정미의병은 원주 진위대 특무정교 민공호를 중심으로 무기를 들고 일어나 왜병과 전투를 벌인 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때에 선생은 32세의 청년으로 이웃 고을에서 의병이 일어남을 보고 자신도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몰아내기로 결심하고 의병 200 여명을 모아 지평, 흥천, 원주, 평창, 영월 등지에서 적을 공격하여 다수의 왜병을 죽이고 무기와 탄약 등을 노획하였는데 왜적과의 교전이 수백회이며 군사가 많을 때에는 천 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특히 1908년 2월에는 흥천에서 왜병 대 부대와 크게 접전을 벌여 이를 격퇴시키니 이에 분노한 일제는 4월 2일에 황성의 일본수비대를 파견하여

흥천군 월운리 서북 후동에 은거하던 선생의 가족을 납치하여 놓고 선생에게 귀순하라고 회유와 협박을 다했으나 선생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를 거느리고 그들의 횡성 본거지를 습격하여 왜적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이후로 일제의 계획적인 대진압 작전으로 의병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미의병은 점차로 해산하게 되었다. 경술국치 후 선생은 국내에서는 항일 투쟁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3.1운동 다음 해인 1920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투사들과 힘을 합하고 대한의용부 참모로 활약하였으며 1926년 2월에는 대한독립단 참모로 취임하여 항일 투쟁을 계속 하던 중 그해 9월 19일에 민족진영의 분열과 그들의 주도권 장악을 노린 좌익단체의 흉탄에 맞아 돌아가시니 향년 51세였다. 선생의 시신은 동지들이 만주 길림성 훈춘현 산채구에 권조(權厝)하고 아직도 독립된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여 그 혼백이 만리타국에 머물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애국정신과 항일 투쟁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하여 1962년 건국공로훈장을 추서하였다.

이제 선생의 장손 한재진 씨가 선생의 묘소를 고국으로 옮겨오지 못함을 절통히 여겨 그 추모의 정을 만분의 일이나마 위로하고자 선생의 고향 마을에 이 비를 세우니 선생의 혼백은 이 돌에 의지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빈다.

1993년 6월 26일

한상렬 의사 추모비 건립위원회 위원장

## 고곳에서도 가슴에 태극기꽃

태극무늬 선명하게 새겨진  
한상렬 의사 추모비 앞에 서서  
한상렬 의사님!  
조용히 불러봅니다.

이역만리 만주 길림성 훈춘현 산채구  
어느 한적한 산자락에서  
통한의 눈물을 삼키시며 외로이  
잠들어 계신 의사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옵니다.

민족의 울분이 화산처럼 터지던  
정미의병 봉기 때  
32세의 피끓는 나이에 분연히 일어서서  
200여명의 의병을 이끄시고  
지평, 홍천, 원주, 평창, 영월 등지에서  
왜병을 물리치신 위대한 족적은  
대한독립운동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크고 작은 항일 항쟁 수 백회  
어떤 때는 군세가 1000여명을 넘었으니  
그 의기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경술국치 이후 만주로 망명하시어  
대한의용부 참모와 대한독립단 참모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시던 중  
흉한의 총탄에 쓰러지셨으니  
그 애통함 필설로 어찌 다 표현하리

태극기 가슴에 덮고  
이역만리 산자락에 쓸쓸히 누워 계실 님을 기리며  
여기 이 추모비 앞에서  
님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아아, 위대하셨던 독립투사 한상렬 지사님이시여.....

## 강림 의병총 비문

이곳 강림의 의병총은 일본이 이 땅을 강점하면서 1907년 구 한국 군대를 강제 해산하자 이에 격분한 병사들과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일어난 백성들이 의병장 민공호 휘하에 모여 봉기하였다.

이들 의병은 치악산을 중심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눈부시게 활동하며 조국의 수호신으로 자신을 불살랐다.

1908년 2월 29일을 전후하여 이곳 강림, 월현에서 일제와 큰 싸움을 벌였다. 이 의병총은 그 당시 이곳에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무연고 의병 다섯분의 묘를 한 곳에 모아 총(塚)을 만들고 묘역을 정화하여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고귀한 뜻을 영원히 기리고자 한다.

1984년 11월 5일 황성군수

## 무명용사는 죽어서 말한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이 어디 있으리오  
조국의 자존과 독립을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무명용사의 묘비 앞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일제 강점기인 1908년 2월  
강림, 부곡, 월현 등지에서  
왜병과 접전하다 장렬히 숨진  
용감한 의병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어  
이곳에 만든 강림 의병총

여기 잠드신 의병들은  
명예도, 부도, 권력도 탐하지 않고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해  
사랑하는 부모처자를 멀리 떠나  
꽃다운 목숨 나라에 바쳤나니  
아, 님들의 희생으로 다시 찾은  
조국의 이름 대한민국이여  
님들의 고귀한 순국정신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묘역에 둘러 선 노송들도  
참배하는 듯 고개를 숙였고  
가지를 스치는 솔바람 소리는  
님들의 목소리가 되어  
우리 가슴에 메아리 친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 금대리 의병총 묘비

1907년 조선군을 강제 해산하고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일제의 만행에 분노를 금치 못하여 의병으로 봉기한 분들 중 이곳 전투에서 순국하신 세분의 무연고 의병들의 묘를 한데 모아 의병총을 만들었다.

1907년 11월에서 12월 까지 이곳 서원면에서는 700여명의 의병이 대부대를 이루었는데 일본군 보병 51연대와 대치하던 강원, 경기, 충청도 의병의 거점으로 연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장렬히 전사하신 의병들의 고귀한 뜻을 후손에 전하고자 묘역을 정비하고 비를 세운다.

1989년 12월 5일 황성군수



## 아아, 꽃다운 영혼이여, 부디 영면하십시오!

대대로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서원면 금대 마을  
의병총 앞에 두 무릎 꿇고  
꽃 한송이 바친다.

1907년 11월에서 12월까지  
700여명의 의병과 일본군 51 연대가  
이 지역에서 치열하게 교전하던 중  
조국을 위해 산화한  
아아, 꽃다운 영혼들이여 부디 영면하십시오!

님들의 장렬한 희생이 없었던들  
어찌 오늘의 조국이 있었겠는가  
님들의 그 값진 희생은  
우리들에게 애국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한다.

님들 가신지 82년 후, 1989년 12월  
여기 저기 산재한 무연고 묘를 모아  
의병총을 만들었고  
매년 음력 10월 초순에 제향을 올릴 때면

그 옛날 님들이 부르짖던 함성이 귓가에  
쟁쟁히 들리는 듯하다.

## 민공호 의병장의 활동

1907년 원주진위대 특무정교로 있을 때  
일제에 의해 한국군을 해산한다는 소식에 분개하여  
민 특무정교는 약 3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원주 우편취급소 및 경찰서를 습격하였고

그 이후 의병을 조직하면서  
오정묵을 포군대장으로 합세시켜  
제천, 충주, 풍기 등지를 습격  
일본 수비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황성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태기산(1261미터)과 봉복산(1028미터) 자락  
신대리 봉복사에 의병의 진영을 두고  
홍천, 인제, 원주, 평창, 영월, 강릉, 등지를 이동하면서  
약 1500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용감히 분투했다.  
100여 차례 크고 작은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민공호 부대는  
후기 의병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세력이었으며

전투력 또한 강했다고 한다.

그러나 1907년 일본군 사또우 대위가 지휘하는  
대 병력의 원주 수비대에게 패하여 큰 타격을 받은 후  
소수의 의병만을 이끌고 전전긍긍하던 중

수주면(현 강림면) 강림리 동쪽 등자치 부근에서  
일제에 체포되어 목숨을 잃으니  
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민궁호 대장의 전적비는 강림면 월현리 도로변에 서 있다.





## 의병대장 민공호의 전적비문

민공호 의병장의 본관은 여흥으로 1865년 경성에서 민치봉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897년 33세의 나이로 원주진위대 고성분견대에 입대하여 1901년 특무정교로 승진한 민공호는 인품이 강직하고 공사가 분명하며 기골이 장대하고 지도력이 탁월하여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일제가 원주 진위대를 해산하려고 하자 원주 장날인 1907년 8월 5일 약 300여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의병을 일으켜 원주 진위대 무기고를 부수고 1,600정의 소총과 탄약을 노획하였다. 한편 읍면들을 규합하여 천 여 명의 의병 부대를 4개 부대로 편성하고 원주 우편취급소와 일본 경찰을 습격하여 원주읍을 장악하였다. 그 후 제천, 죽산, 장호원, 여주, 흥천 등지에서 수 천의 의병 부대를 이끌고 크나 큰 전과를 올렸다.

민공호 의병장이 이끈 의병부대는 단위부대로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전투력이 강했으며 모두 100여 차례 전투에서 일제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나 1908년 2월 29일 43세의 나이로 장렬히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으며 서거 90주기를 맞아 1998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지정하였다. 강림면영회에서는 강림면민 모두가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지를 확고히 하는데 디딤돌이 되신 민공호 의병장의 넋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민족의 자존심과 백의민족의 정체성을 전해주기위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이곳에 전적비를 건립한다 .

2004년 11월 강림면번영회

## 산은 옛 산이로되

강림면 월현리 주천강변에 서 있는  
민공호 의병장의 전적비 앞에 서면  
가슴에 울컥 울분이 치민다.

이 산하 어디쯤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다한 의병들의  
그 피끓는 애국심을 생각한다  
지금부터 100여년전 나라 잃은 설음이 복바쳐  
목놓아 외치던 그 함성  
대한독립만세!  
산도 옛 산 그대로이고  
강도 옛날처럼 흐르고 있는데  
아, 꽃답게 산화한 님들의 혼은  
어느 곳에서 잠자고 계실까.

1908년 2월 강림면 등자치에서

조국 위해 순국하신

민공호 의병대장

님은 가셨지만

조국 위해 몸 바치신 그 위대한 애국심은

지금도 우리 가슴에

저 강물처럼 출렁인다.

## 꽃다운 목숨 조국에 바친 최인순 의병대장

최인순 의병대장은

우천면 법주리에서 출생하신

항일 투사로서

원주진위대에서 소모대장(召募隊長)으로 있던 중  
일본이 우리 군대를 해산하려하자.

이에 분개하여 비밀리에 봉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만류하는 장교들을 찾아가

“나라가 평화로울 때는 국록을 먹고

이제 국운이 불리하니 도피하느냐?” 며

분산되려는 군사 800여명을 다시 모아

잠긴 무기고를 부수고 재무장하여 일본군에

용감히 대항하였다.

소초면 학곡리에서 다시 의병을 모아

군세를 더욱 불리어

횡성, 안흥, 강림, 대화 지역의 격전 중

함께 싸우던 민공호 대장은 강림에서 전사하고  
최인순 의병대장은 강릉으로 이동 도중  
진부 전투에서 왜적을 무찔렀지만  
중과부적인 왜군에게 밀리어 강릉 배다리 전투에서  
43세의 일기로 장렬하게 전사하셨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8년 대통령 표창  
1977년 대한민국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일본군에 비교하여 무기의 약세임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그 뜨거운 항일정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애국의 불길로 활활 타 오르리라.





5장 | 반겨가는  
만세운동

## 민중의 각성과 친일파의 고발

3.27만세 운동과 4.1만세 운동, 그리고 4.2만세운동이 일어난 후 황성군내 각 마을은 물론 이웃 원주, 평창, 영월에 이르기 까지 만세운동의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모르는 사이에 애국심이 고양 되었으며 그 가운데 만세운동을 열렬히 지지하고 일본의 횡포를 이야기하던 중 일본의 앞잡이의 고발로 발각되어 잡혀가 옥고를 치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은 당시 경성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적혀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둔내면 자포곡리에서 잡혀와 재판을 받고 8개월의 징역을 받은 이기순 지사와 공근면 마곡리(매곡리) 이유태 지사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마을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계속되어 황성군수와 헌병분견 소장은 아래와 같은 공문을 각 면장과 구장에게 하달한다.





각 면장 앞 / 각 구장

## 소요사건에 대한 내첩

근시(近時) 소요 전파의 상황을 사찰한 즉 읍내는 경비가 삼엄하여 놀아날 여지가 없음을 보고 경비가 비교적 허술한 지방에 미치려고 하는 경향이 짙다. 그 주요한 원인은 타군, 타도에서 들어오는 나쁜 무리의 선동과 협박에 의한 것이 많다니 유감스럽다. 그들 나쁜 무리가 귀 면내에 들어와 선동 협박하는 경우에는 곧 힘을 모아 포박하여 헌병에 넘길 것이며 이것을 일반인에게도 급히 주지시켜 좋은 성과를 올리기를 특히 내첩 함

\* 이 공문은 당시 영영포리 구장이던 위창래의 아들 위성현이 보관했던 것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개인은 물론 가정의 몰락, 끝내는 목숨까지 바쳐가며 항일 운동에 몸 바치는 애국지사들을 감싸주지는 못할망정 일제에 고발하거나 일제에 아부하여 영달을 꿈꾸는 친일파의 행적은 역사의 죄인으로 두고두고 속죄해야 마땅하다. 일제는 애국지사들을 폭도, 강도, 불한당으로 매도하였고 일제에 동조하여 항일지사에게 위해를 가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위가 더욱 더 가슴 찢어지는 일이었다.

황성 만세운동의 열기는 들불 같이 일더니 드디어 이웃 마을로 번지가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4월 5일 소초만세운동과 평창의 만세운동이다. 그 이후 영월 등 강원도 전역에 불붙기 시작했다.

## 마흔 셋에 붙는 애국의 불길

4.1만세운동의 불길은 이웃 마을 소초면으로 옮겨 붙었다  
소초면 둔둔리 의관리 평장리 교항리 등은 그 생활권이  
횡성권이라 장도 주로 횡성장을 보아왔다.

3월 27일 만세운동, 4월1일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그 불씨를 소초면으로 가지고 갔다.

소초면 둔둔리, 의관리는 항일정신으로 똘똘 뭉친  
애국의 마을이었다.

의병장으로 활동하다가 청일면 춘당고개에서 전사한  
강도영 지사를 중심으로 강달회, 강만형, 하영현 등 천도교인은  
항일정신이 특히 불타올랐으며 춘천에서 의병으로 활동하던  
박영하를 마을 서당 훈장으로 모셔 놓고  
청년들과 주민들에게 애국정신을 배양하여  
그 어느 고장 보다 일제에 저항심이 드높은 마을이었다.

4.1 횡성만세운동에서 강달회와 하영현 지사가 피살되고  
그 곳의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고통을 당하자  
드디어 가슴속 울분은 폭발되고 말았다.  
4월 3일 강달회 지사의 장례식에 모인 이들은  
4월 5일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둔둔리 서당 선생 박영하는  
평장리 신현철에게 편지를 보내고 신현철은 4월 3일 밤  
동생 신현성을 시켜 그 친구들과 함께 청년들을 규합하게 하고  
평장리 청년들은 비밀 연락문을 가지고  
둔둔리, 장양리, 의관리, 평장리, 교항리 등을 다니며  
4.5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 한다.  
인근 마을 중에 수암리를 빼놓은 것은  
그곳에 헌병파견소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 번지는 만세운동의 불길

드디어 4월 5일 치악산 마루에 붉은 해가 솟았다  
항일정신으로 끓어오르는 울분을 가슴에 간직한 채  
한 사람 두 사람 마침내 수백명이 모여 들었다.  
평장리에는 신현성과 김홍렬 등이 주민을 선도했고  
장양리에는 심능준 등을 심의성이  
둔둔리는 신경묵 등을 박영하가  
의관리는 김동혁 등이 각각 주민을 이끌고  
면사무소에 모여 들었다.  
처음에는 부채고개에서 모여  
면사무소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오후 1시경 시위 군중은 면사무소로 달려가  
당시 면장이던 남상철을 끌어 내  
독립만세를 부르라 강요했으나 끝내 거절하자  
선두에 섰던 박영하의 외침에 따라  
군중은 우뢰 같은 목소리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만세소리는 치악산 자락을 휘감아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수백명의 군중은 만세를 외치다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갔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수암리 일본 헌병과건소에서는  
안한연 변덕준 등 헌병보조원을 앞세워  
만세운동 참여자를 붙잡아 갔다.  
주동자 신현철은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고 교항리 전병훈을 비롯한  
그 외 12명의 사람들은 태형을 맞았다.  
심하게 맞은 사람들은 업혀서 갔거나  
달구지에 실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만세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가슴속 깊이깊이 이글이글 피어나고 있었다.

## 평창으로 번진 불씨

횡성만세운동의 열기는 서서히  
전재와 문재를 넘어 평창으로 옮겨갔다.  
평창 운교리 사람 김인경은  
횡성천도교구장 최종하로부터 3월 13일  
독립선언서 12매를 받아 이인영에게 전해주고  
이인영은 3월 16일 대화리 천도교인  
최상달에게 다시 전달한다.

한편 평창 하일리 유학자 이승로도  
다른 계통으로 받은 독립선언서를 입수  
이종하와 함께 만세운동을 계획하는데  
천도교인과 유학자 두 갈래로 추진된 만세운동은  
하나로 합쳐져 그 뜨거운 불씨가 피어오르기 직전  
3월 21일 계촌리 유영묵의 집에서  
손상봉, 김홍지, 이승로 김홍지 등이 모여  
4월 4일 대화장날과 4월 5일 평창장날에  
만세를 부르기로 굳게 약속 한다.

4월 3일 이종하는 태극기를 만들기 위해  
평창장터에서 종이를 구입 손상봉과 함께  
이승로의 집에서 태극기를 만드는데

친일파의 고발로 갑자기 들이닥친 일제 관헌에게  
주동자들이 모두 체포되어 만세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만세는 부르지 못했지만 그 불씨는 결코 꺼질 수가 없었다.









6장 | 잊지 못할  
그날의 기억

## 무언(無言)의 저항운동(抵抗運動)

1919년 3월 중순 경으로 졸업 날짜를 바라보고 있을 때 민족의 역사적 항거인 3.1만세운동이 서울서부터 시작되었다.

횡성에서도 천도교와 기독교인 그리고 유학자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거행하기로 은밀히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힘입어 우리 학생들도 이에 동참하기 위하여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 5-6명이 실행계획을 수차례 깊이 있게 토의한 결과 졸업날인 3월 18일 졸업식 종료와 동시에 군청 뒷산으로 나아가 만세를 부르기로 결정하고 세부계획을 숙의(熟議)하던 중 읍내의 지도자 어른들의 자문과 지도를 받기로 하고 약방을 경영하는 심용구씨와 김택수씨 그리고 청년부장 이던 윤태환씨에게 우리의 계획을 설명하였더니 이분들은 감개무량해 하며 우리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셨다.

“어린 학생들 만으로의 운동은 효과가 적을 뿐 아니라 희생의 위험성이 많으므로 전군민이 만세운동을 벌릴 때 같이 합류하면 대의명분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학생들은 통신 연락 등의 역할(役割)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우리 학생들은 그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나 학교의 명분과 학생들의 독단 행동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아쉬워 다시 몇 차례 비밀모의를 가진 끝에 <무언(無言)의 저항운동(抵抗運動)>을 전개하기로 하고 그 방법은 고종황제(高宗皇帝)의 승퇴(昇退)를 슬퍼하는 표시로 3월 16일부터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고 전교생이 등교하였다

1919년 3월 16일 !

전교생의 행동은 일사분란(一絲分亂)하였다. 일본인 교장은 당황하는 기색이

완연하였고 일본 헌병대에 연락하여 감시활동이 강화되었으며 학교는 휴교령을 내렸고 3월 18일로 예정되었던 졸업식도 취소되고 졸업장은 집집마다 우송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횡성읍에 대한 일본 헌병대의 감시가 더욱 더 강화되었으며 시장 분위기는 매우 삼엄하였다

그 후 약 10여일이 지나 장날을 기해 전군민의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사전 비밀 연락 활동에 의해 8개면에서 군민들이 모여들어 ‘장보러 온 척’ 하다가 갑자기 수백명 군중이 군청 뒷산으로 올라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횡성 보통학교학생들도 합세했다.

이 때 헌병대는 즉시 헌병 수십 명을 출동시켜 해산시키려 했으나 군중들이 점점 더 모임으로 진압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발포(發砲)하기 시작했다.

여러 사상자들이 생김에 따라 군중은 더욱 더 흥분하였고 만세를 부르며 시장으로 내려와 더 격렬하게 만세를 부른 후 해산했다. 이 때 시장은 모두 철시(撤市)되었고 노변(路邊)에는 일 헌병들만 서성거리고 있었다.

우리 횡성보통학교 학생들은 우리들이 벌린 상장패용무언저항운동(喪章佩用無言抵抗運動)을 시작으로 횡성만세운동이 펼쳐진 것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들은 연락책임과 심부름을 담당했지만 우리의 작은 힘도 함께 했다는 점을 크나큰 긍지로 삼고 있다.

(전 내무부장관이며 횡성보통학교 제6회 졸업생인 장석윤 선생의 횡성보통학교 60년사에 기고한 회고록임)

## 삼베 상장(喪章)을 가슴에 달고

1919년 3월 16일

횡성보통학교 학생들 모두 가슴에  
삼베로 만든 상장(喪章)을 달았다  
고종황제의 승퇴(昇退)를 슬퍼하는 마음과  
항일정신의 말없는 저항운동으로

3.1만세의 불길이

전국으로 번져갈 때  
횡성보통학교 학생들 가슴에도  
항일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3월 18일 졸업식을 끝내고 군청 뒷산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했는데  
이를 눈치 채 일본인들은 휴교령을 내렸고  
졸업장은 집으로 우송하였으며  
이 일로 하여 일본 헌병의 감시는  
더욱 더 삼엄하였다.

참았던 분노가 드디어 폭발 된

1919년 4월 1일

4.1만세운동의 함성이 천지를 진동할 때

학생들도 어른들과 합세하여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다.

그날의 기억이 어언 백년 전

그 만세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하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 나무의 족보

황성초등학교 교정에는  
죽은 소나무 우듬지 앞에  
건장한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나무에는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달려 있다.

< 이 소나무 앞에 있는 저 우듬지는 이 나무의 할아버지입니다.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송진을 약탈해 가던 자국이  
이 우듬지에 브이자로(M)로 파여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소나무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솔방울에서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이 소나무는  
뼈아픈 민족의 수난사를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

학생들은 날마다 이 나무를 보면서  
아팠던 우리 역사를 되새겨 보리라.

살아있는 후손인 이 소나무에는  
푸르고 싱싱한 솔방울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아픔 속에서도 종족을 보존시키려던  
노력의 결실이 지금은 푸른 생명으로  
피어나고 있음이여

이 나무 앞에 서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 오신 분들의 고마움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나라사랑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있으리라.

귀 기울여 들어보면 지금부터 백년 전  
독립만세를 목놓아 외치던  
애국소년들의 목소리가  
솔바람을 타고 은은히 들려오는 것 같다.



## 젊음의 가슴속에 번져가는 4.1만세의 불꽃

횡성 4.1만세운동의 외침은 강원도 전역에 메아리 쳤으며 민족의 가슴에 더욱 뜨거운 항일의 불꽃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횡성 출신 학생들의 활동은 마치 항일운동의 불쏘시개가 되어 잠자던 민족의 가슴마다 활활 저항의 불꽃을 피어오르게 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정형철, 백흥기, 신현빈, 원후정, 심재영으로

강릉농고 정형철은 2학년 재학 중 반일 감정의 표출로 퇴학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전교생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여 전교생이 동맹휴학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춘천고등보통학교 5학년 재학중이던 백흥기와 신현빈은 1937년 3월 9일 동지들을 규합하여 상록회를 조직하고 조직 강령으로 조선민족 해방을 위하여 참된 조선인 양성, 회원의 단결심 양양, 항일 훈련방안 등을 계획하였다.



월례회, 토론회, 독후감 발표회, 귀농운동 등으로  
특히 주를 이룬 것은 독서회 운동이었고  
농민의 자각이 조국의 독립을 일깨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경의 눈을 피해 은밀히 활동하던 상록회는 1938년 발각되어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 회원들도 모두 체포되었고  
백홍기는 모진 고문 끝에 옥사하였다.  
일제의 모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1939년 3월  
투옥되었던 동지 12명이 다시 독서회를 조직하여  
민족 각성운동을 계속 전개하다가  
1941년 11월 경성지방법원에 송치되어  
1942년 실형선고를 받고  
서대문형무소와 김천형무소 등에서 복역하다.  
병보석 또는 광복과 더불어 석방되었다.

그 불씨는 꺼질 수가 없으리라.  
지금도 젊음의 가슴 속에 번져 가리라.  
해마다 재연하는 4.1만세 운동  
그 우렁찬 만세소리와 함께 애국의 불꽃은  
활활 번지고 있으리라.

## 한 집안에 3명의 의사(義士)

황성만세운동을 기억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름들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의 강씨 3 의사(義士)  
강도영, 강달회, 강만형의 이름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천도교 황성교구장을 지낸 강도영 의사(義士)는  
전기 의병 봉기 때 의병대장으로  
청일면 춘당고개에서 분전하다

나라 위해 목숨을 바쳤고  
그의 막내 삼촌 강달회 의사(義士)는  
4.1 만세운동 때 선두에 서서 항거하다  
일제의 흉탄에 쓰러졌으며

28세의 피끓는 청년 강만형 의사(義士)는  
부친 강도영의 항일정신을 본받아  
28세의 젊은 나이지만  
1919년 3월 27일  
최종하 등 4명의 동지와 함께

60여 매의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제작하여  
군중에게 나누어 주며 만세운동을 지휘하다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었다.

일제는 모진 고문으로  
강만형의 의기를 꺾으려 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은 강만형 의사(義士)는  
29세의 꽃다운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하였나니  
아, 그 의기 그 항일정신,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히 남으리라

이승에서는 비록  
길지 않은 삶이었지만  
죽어 천년을 사는 그 이름 위에  
부디 영광 있으리라.

## 이슬처럼 사라진 의로운 유생 김치정

김치정 의사(義士)는  
갑천면 매일 3리 잔골 마을에서  
한학을 가르치던 서당 훈장이었다.

황성 4.1독립만세 때 김치정 의사는  
신건수를 비롯한 제자들을 이끌고  
만세를 불렀다  
노도처럼 몰려가는 군중의 선두에서  
태극기 높게 흔들며  
만세! 만세! 힘차게 불렀다.

무차별 난사하는 일제의 총탄에  
장렬하게 쓰러진 김치정 의사  
방치된 시신을 뒤늦게 발견한 잔골 사람들은  
일제의 눈을 피해 은밀히 운구하여  
갑천면 매일2리 작은 동산에 장사를 지냈다.

일제의 탄압과 감시가 무서워  
끝내 알리지 못한 김치정 의사의 순국  
이슬처럼 사라져 간  
그 님의 의로운 죽음은  
먼 훗날 신건수의 증언으로 알려졌다.  
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이제라도 우리 모두  
그 님의 의로운 죽음을 기억해야 하리라.



## 횡성만세운동의 불씨가 피어난 곳

횡성만세운동의 불씨는  
영영포리 마을에서 피어나기 시작했다.  
천도교 봉훈이었던 신재근의 집에서  
애국 동지들이 모여 만세를 부를 것을 결의하고  
신재근은 장도훈에게  
태극기 및 독립선언서 구입자금 3원을 전해준다.

장도훈은 1919년 3월 11일 경성에 가서  
대형 태극기 한 폭과 종이로 만든 태극기 20매  
독립선언서 40매를 구입하여  
3월 26일 고향에 돌아오자 그 날 안으로  
신재근은 영영포리를 비롯한 횡성읍 일대에  
강만형은 원주 소초면 지역에  
안경춘과 김인경은 안흥 갑천 둔내면 지역에  
몰래몰래 배포하였다.

3월 27일 신재근과 장도훈은 횡성시장에서  
윤태환에게 대형 태극기를 흔들게 하고  
모여 든 장꾼 300여명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주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정보를 미리 알고 대기해 있던 일본 경찰과  
원주에서 증원 파견된 기마병에 의해  
군중은 해산되고 주동자들은 붙잡혀  
신재근과 장도훈은 징역 2년  
안경춘은 징역 10개월, 강만형은 징역 8개월  
윤태환은 징역 6개월을 받았지만  
그 불씨는 4.1독립만세를 비롯한 민족의 봉기와  
항일저항운동으로 더욱 더 번지게 되었다.

## 만세운동의 숨은 조력자 위창래 구장(區長)

횡성읍 영영포리는  
횡성 향일 만세운동의 온상(溫床)이었다  
뒤에는 국사봉이 우뚝 솟아 있고  
앞으로는 섬강의 맑은 지류가 유유히 흐르는 곳  
바로 이곳에서 횡성만세운동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비밀을 지켜주고 은밀히 도와준 사람  
위창래 구장의 공로를 어찌 잊을 수 있으랴  
당시의 관료들은 군수, 면장, 모두 친일파였고  
또 각 마을마다 공문을 내려 보내  
철저히 감시를 지시했는데  
이를 덮어준 위창래 구장은 만세운동의  
숨은 조력자였다.

일제는 독립운동가를  
폭도나 도둑 역적 등으로 몰아가면서  
이웃끼리도 서로 고발하게 했고  
이를 어기면 같은 죄목을 적용했으니  
이 얼마나 야비했던가  
그런 가운데도 은밀히 도와 준 사람  
그 또한 독립운동가의 한사람이 아닌가.



## 50여리 먼 길을 애국의 일념으로

안흥면 상안리에서 영영포리까지  
50여리의 험한 길을 걸어 다니며  
만세운동을 계획한 안승훈(경춘) 의사(義士)  
그는 독립투사 최양옥과는 처남매부 사이이며  
그 당시 그는 피끓는 20대의 청년

장도훈과 김인경에게 글을 배웠고  
애국정신과 항일 저항 정신이 투철한  
그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마그마 같이  
겨레의 의분이 들끓고 있었다.

신재근, 장도훈, 강만형 등과 함께  
수차례 만나 만세운동을 계획하면서  
어떤 때는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  
험한 전재 고개를 넘기도 했으며  
안흥면 전역에 태극기를 배부할 때는  
발이 부르트기도 한 정열의 사나이

1919년 3월 27일  
황성만세운동 때 선두에 서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에 붙잡혀  
옥고를 치르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던 안승훈 의사  
지금도 전재를 넘을 때는 그 이름이  
문득 생각난다.



## 태극기 휘날리며

횡성 읍하리 출신 윤태환은  
1919년 3월 27일 만세운동 당시 22세의 피끓는  
청년단의 지도자였다.

신재근이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자  
기꺼이 선두 대열에 서서  
대형 태극기를 흔들며  
학도가를 부르면서  
300여명의 군중을 선도하였다.

당일 오후 1시경  
신재근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려고 하자  
일본 헌병들이 달려왔다  
군중은 목소리를 높여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고  
일본 헌병은 주동자들을 붙잡아 갔다.

윤태환 청년 의사는  
맨발로 포승줄에 묶이어 끌려가면서도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지금도 군청 앞길을 걷노라면  
그의 피끓는 절규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 횡성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들

3.1운동 민족대표는 33인이었지만  
횡성만세운동을 추진한 사람들은  
천도교인 16명,  
청년회 2명  
감리교인 2명  
유학자 3명  
서울 유학생 1명 으로 모두 24명이었다.

횡성읍 읍상리 최종하	천도교 교구장
횡성읍 읍하리 윤태환	청년회원
횡성읍 읍하리 탁영재	감리교인
횡성읍 읍상리 전성수	천도교인
횡성읍 읍상리 최동수	청년회원
횡성읍 영영포리 신재근	천도교인 64세로 주도인물
횡성군 내지리 정해경	감리교인
우천면 두곡리 김명기	유학자
우천면 두곡리 김진대	유학자
갑천면 매일리 김윤배	천도교인
안흥면 안흥리 천선재	천도교인 78세로 최고령
안흥면 상안리 장도훈	천도교인

안흥면 상안리 김인경 천도교인  
안흥면 상안리 안경춘 천도교인  
우천면 가좌곡리 김연의 천도교인  
우천면 하산전리 조상렬 천도교인  
우천면 법주리 강성순 천도교인  
갑천면 추동리 최양옥 서울 유학생  
갑천면 매일리 김치정 유학자  
소초면 둔둔리 강달희 천도교인  
소초면 둔둔리 강만형 천도교인  
소초면 둔둔리 하영현 천도교인  
소초면 교항리 추병학 천도교인  
소초면 교항리 추병윤 천도교인

이들 중 강달희, 하영현, 강성순, 김치정 전한국은 4월 1일 만세 운동 때 목숨을 잃었고 최종하, 신재근, 장도훈은 징역 2년. 정해경은 1년 6개월, 김인경, 조상렬, 전성수, 김윤배, 김연의, 안경춘, 강만형은 8개월, 윤태환 추성윤은 6개월의 징역을 살았고 강만형은 옥사했다.

그 후 독립운동을 계속 추진한 사람 중에 최양옥 의사를 잊을 수 없다 중국과 우리나라 전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17년의 긴 옥고를 치루고 광복을 맞이한 불사조 같은 그 이름 최양옥 의사는 3.1운동사의 큰 별이 아닐 수 없다.

## 그 먼 300리 길 열정으로 달려간 사람

천도교의 열렬한 교인이던 장도훈은  
평남 성천 사람으로  
을사조약에 반대해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1907년 안흥면 상안리에 정착하여 살았던  
항일 의사(義士)였다.

황성만세운동의 주역인 장도훈은  
교구장 최종하와 봉훈 신재근과 협의한 후  
신재근으로부터 돈 3원을 받아  
1919년 3월 11일 서울에 올라가  
서울에서 의사원으로 활동하던 이동구를 만나  
독립선언서 40매와 태극기 20매를 가지고 왔다

3월 12일부터 약 10여 일간  
더 많은 태극기를 제작했고  
가져온 독립선언서와 함께 이를 은밀히  
배포하였다.

멀고 먼 300여리 길을 오가며  
가슴속에 불태운  
장도훈은 황성만세운동의 불꽃이었다  
그 뜨거운 항일의 열정을 우리는 오래도록  
기억해야 하리라.



## 78세의 열정 항일의 깃발을 든다

황성만세운동의 주동자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던 천선재 의사(義士)  
그는 안흥면 안흥리 사람이었다  
황성만세운동에도 참여했지만  
그 불길을 영월군으로 옮기려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던 분

1919년 4월 8일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최춘일과  
다음날 4월 9일 양변면 신일리 최상호  
그리고 4월 10일 수주면 무릉리 현성준의 집에서  
동민들을 모아 놓고 일제에 항거할 것을 역설하고  
주천장날 대대적으로 만세운동을 준비했으나  
사전에 붙잡혀 옥고를 치루었다.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구에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란 말  
사람 목숨 예로부터 칠십을 살기 드문 일인데  
78세의 노구에도 조국을 향한 그 열정



실로 놀랍고 존경스러워라  
황성만세운동사에 그 이름  
오래오래 기억되리라.



## 횡성만세운동을 주도한 천도교인들의 활약

횡성 만세운동의 불길은 네 갈래로 피어올랐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심에서 타오른 불길은 천도교도 들이고, 감리교회 사람과, 유림, 그리고 청소년들이었다. 네 갈래의 불길이 하나로 뭉쳐 그 어느 곳보다 열정적으로 활활 타 올랐다.

3.1운동의 주역 33인 중 그 대표는 천도교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이었던 것과 같이 횡성만세운동의 주동인물 24명 중 그 16명이 천도교인들이었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횡성에만 대교구가 있었고 횡성교구는 횡성뿐만 아니라 원주, 평창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

정열적인 젊은 교구장 최종하를 비롯하여 치밀한 성격의 봉훈 신재근, 장도훈과 법주리의 강성순, 둔둔리의 강달회 강만형, 하영현, 안흥리의 천선재, 상안리의 김인경, 안경춘 가좌곡리의 김연의, 읍상리의 전성수, 매일리의 김윤배, 하산전리의 조상렬, 소초면 교항리의 추병학, 추명윤 등이

각 지역마다 민중을 선도했고  
모든 계획은 일제의 눈을 피하기 쉬운  
영영포리 신재근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황성천도교 출신으로 도훈이었던 이채일과  
의사원 이동구가 서울 천도교 본부에 있었으며  
특히 이동구는 서울에서  
3.1운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본부와의 연락이 다른 곳보다 빠르고  
비교적 정확하였다.

일제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3월 27일, 4월 1일, 4월 2일, 4월 5일,  
연이어 만세운동의 불길이 활활 번질 수 있었던 것도  
죽음을 각오한 천도교인들의 열정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 황성만세운동과 유림(儒林)의 활약

3.1운동 민족 대표 중에 유림에 관계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지만 일제의 간계로 인해 고종황제가 돌아가시었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장례에 참가하려 전국의 유학자들이 구름 같이 서울에 모여 들었고 파고다 공원의 만세 운동에 참가하여 항일의 울분을 소리쳐 부르짖었다.

지방에 돌아 온 유생들과 나라 안 모든 유림들은 그 이후 만세 운동에 적극 참가하게 되고 나라말과 글마저 빼앗긴 국민들에게 서당을 열어 사람들에게 애국정신과 항일정신을 가슴 깊이 심어주게 된다.

매일리의 김치정은 서당의 훈장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4.1만세운동에 참여했으며 두곡리의 김진대와 김명기 부자와

특히 한마을 전체가 독립만세를 부르던  
서원면 분일리는 그 주동 인물들  
김옥봉, 성태현, 박민희, 송병기,  
유정근, 이정현, 이두연, 이종우 등  
여덟 사람은 모두 유생들이었다.  
유생들은 마을의 지도자로서  
나라에 대한 충성과 민족의 자존을  
주민들에게 널리 일깨워 주었으며  
항일에 대한 의식을 더욱 더  
고취해 주었다.



## 4. 1만세운동과 횡성감리교회

4.1만세운동 당시 횡성감리교회는  
신도가 그리 많지 않은 작은 교회였다  
1906년에 교회가 건립되어 십여년이 지났지만  
담당 목회자도 없었고 교회의 중진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

천도교인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의 불길이 일자  
횡성감리교회에서도  
정해경 탁영재 등이 교인들을 이끌고  
만세운동에 합류하여  
최전방에서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다.

유림들과 청년들, 감리교회 인들과  
장꾼들까지 합세하여 만세를 부르니  
천여명을 훨씬 넘는 군중의 만세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다.

감리교회 지도자 중 정해경 의사(義士)는  
현장에서 검거되어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루었고  
탁영재 의사는 그 후  
철원애국단(鐵原愛國團)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20년 일경에 붙잡혀 옥고를 치루었다.



## 주도면밀한 최종하 대교구장

황성 4.1독립만운동을 전개할 당시,  
황성에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천도교 대교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황성은 물론 원주, 평창까지 관할했으며  
각 지역 마다 긴밀한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최종하 교구장은  
주도면밀한 성격이라  
사무실은 읍하리 지금의 천주교 부근에 있었지만  
정보와 기밀보안 문제로  
모든 거사 계획은 도훈이었던 영영포리 신재근의 집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었으며

황성읍은 물론 안흥면, 갑천면, 우천면, 둔내면,  
소초면 둔둔리, 의관리, 교항리와  
평창, 영월에 이르기 까지  
최종하 교구장의 뜻이 전해져  
황성만세운동의 불길은 그 어느 곳보다  
활활 불타올랐다.



일제에 붙잡혀 재판을 받을 때  
〈만세운동은 우리의 국권과 자유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일제는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하여  
2년의 옥고를 치루었다.  
황성만세운동을 떠 올릴 때 우리는  
최종하 대교구장의 그 위대한 항일정신을  
잊을 수가 없다.



## 애국의 불길에 몸을 태우며.....

하영현 의사는  
항일정신의 요람인 둔둔리에서  
자라나셨다.

횡성 천도교의 교구장으로 의병을 일으켜  
청일면 춘당 고개에서 순국한 강도영 의병장과  
그의 아들 강만형, 막내 삼촌 강달회 의사 등  
한 집안에 세 사람이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친 의로운 마을  
그 마을에 함께 살던 하영현 의사  
그의 가슴에도 항일정신이 불타고 있었다.

1919년 3월 27일 만세운동으로  
강만형이 일제에 붙잡혀 고초를 당하자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여  
대대적으로 만세를 부르다가  
일제의 흉탄에 맞아 장렬하게 순국한  
하영현 의사(義士)

그의 의로움과 애국정신은  
역사 속에 환한 불길이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으리라.

## 만세운동에 앞장 선 서당 훈도

김인경은 안흥면 상안리 사람으로  
서당 훈도였다.

일제가 우리말과 글을 빼앗자 서당에서  
민족정신과 애국정신을 가르치던 사람으로  
1919 4.1만세운동 때는 안흥리 사람들을 동원하여  
만세운동을 부르다가 일경에 붙잡혀  
징역 8개월의 옥고를 치루었다.

김인경은 1919년 2월 13일  
영영포리 신재근의 집에서  
천도교 대교구장 최종하로부터  
독립선언서 12매를 받고 이를 배포하였으며  
4.1만세운동 때는  
1300여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천도교 대교구실에 태극기를 높이 걸고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던 38세의  
피끓는 청년이었다.

## 독립선언서 내용 중

〈최후의 한 시간, 최후의 한 사람까지 분투하여 일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을 특히 강조한 그 항일정신이야말로 말로 영원히 꺼질 수 없는 삼일의 불꽃이 되어 겨레의 가슴 속에 활활 타 올랐으리라.





7장 | 영원히 타오르는  
그날의 불꽃

## 영영포리에서

마을 앞을 흐르는 냇물이  
길게 흘러간다 하여 영영개라 부르던  
인정과 의리의 마을 영영포리에 오면  
가슴이 따뜻해 진다.

국사봉 산자락이 부채살처럼 펼쳐진 마을  
되재기재 앞에서 버덩말 앞까지  
맑은 섬강 지류가 휘돌아 가듯  
언제나 끈끈한 정이 흐르는 마을

1919 황성만세운동의 불씨가  
바로 이곳에서 피어난 곳  
만세운동 주동자들이 여러 차례 만나  
항일의 불씨를 피워 올렸지만  
누구 하나 고발하지 않은  
인정과 의리로 뚝뚝 뭉친 마을

그들은 일제의 보복도  
사후의 모든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비밀을 지켜주었나니  
그 이름 영영포리와 같이  
우리들 가슴 속에 오래오래 남으리라.

영영포리 마을에 와서  
이곳을 오고 갔을 항일 투사들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불러 본다  
최종하, 신재근, 강달희 강성순, 강만형, 김인경,  
장도훈, 안경춘 의사.....

영영포리 앞을  
휘감아 흐르는 물은  
위대했던 역사의 여운을 안고  
오늘도 유유히 흐르고 있구나.

## 다시 삼일공원에 올라

삼일공원에 오르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님들이 부르시던 만세소리  
폭악한 일제가 쏘아대던 총소리  
아우성 소리, 외침소리.....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겨레의 울분이 곳곳에 어리어 있다.

공원 한 가운데 서 있는  
3.1운동 기념비를 다시 읽는다.  
광복 27주년과  
동아일보 창간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동아일보와 횡성군민이 건립한  
역사적인 조형물

전북 이리시와 충북 영동에 이어  
우리나라에선 세 번째로 세워진  
이 기념비는  
700여명의 군민 성금과  
동아일보사의 후원금을 모아  
1972년 광복절에 세워졌다.



이 기념비는  
비석 1기와 햇불을 든 조각 1기로 되어 있으며  
글은 이희승 박사,  
글씨는 서희환 서예가,  
햇불을 든 조각은 김영중 조각가의 작품으로

민족의 울분과  
온 군민의 함성이 여기에 농축되어  
높이 든 저 햇불과 함께  
오늘도 호국의 일념으로  
활활 타 오르고 있다.

# 목숨보다 더 귀한 것

- 퍼포먼스 1.

백년 전 그날처럼  
바로 이 거리에서  
일본 헌병의 총탄에 쓰러진  
님들의 모습을 다시 본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부르고 또 부르고  
외치고 또 외치면서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조국의 독립과 자존을 위해  
님들이 부르시던  
만세, 만세, 만세 소리.....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타오르는 삼일의 불길

## 다시 타오르는 삼일의 불길

황성 4.1만세운동  
그 불길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다.

해마다 그날이 오면  
그 불길은 더욱 뜨겁게  
우리의 애국심을 일깨우고  
그날 선열들의 외침처럼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부른다.

저 하늘도 땅도 바람도 구름도  
삼일공원에 서 있는 나무들도  
다 함께 다시 깨어 일어나  
소리 높여 만세를 부른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선열이여 보소서  
님들의 애국정신을 이어나가는  
우리들을 보소서  
그날의 그 불꽃을 다시 태우는  
우리들을 보소서

애국충절의 고장  
자랑스러운 우리의 횡성  
태극기의 물결 속에 펄럭이는  
아아, 뜨거운 애국혼을 .....



## 다시 밝히려는 세기(世紀)의 불길

일고 일던(1919) 삼일의 불길  
우리 가슴 속에서  
100년을 타 올랐다  
아, 그것은 독립의 표상이요  
우리 민족의 영원한 자존이었나니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또 아버지  
3,4 대를 이어 한결같이 타오른  
정의와 소망의 상징이었다.

이제 2019년이면  
한 세기를 넘어가는  
역사의 분수령  
더욱 더 뜨겁게 더욱 더 밝게  
활활활  
타올라야 하리라.

만세, 만세! 다시 외쳐보는  
피맺힌 민족의 절규  
4.1만세운동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그날의 그 뜨거움으로  
역사의 현장 바로 이곳에  
다시 서 본다.



## 님들이시여 오늘의 영광을 보소서

차가운 동토(凍土)의 땅에  
새봄이 오듯이  
긴긴 어둠을 헤치고  
아침이 밝아오듯이  
일제 36년의 어둠 속에서  
광복으로 밝아 온 조국의 영광  
님들이시여 다시 보소서

이 영광을 맞이하기 위하여  
거룩한 3.1의 불꽃은  
얼마나 위대했던가  
200여만의 군중과  
1500번의 집회  
사망자 7500여명  
부상자 수만명.....

일고 일고(1919) 또 일던  
아, 민족의 의로운 봉기여  
선열들이 흘리신 피의 댓가로

우리는 지금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이여

지금부터 백년 전  
님들이 목놓아 부르시던  
그 만세의 현장에서  
조국의 영광을 다시 봅니다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만세!



## 백 년 전 그날처럼

해마다 4월 1일이 되면  
백 년 전 그날처럼 만세를 부른다.  
3.1공원에서 거리로 몰려 나와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부른다.

만세소리 속에서  
님들의 외침을 다시 듣는다.  
태극기 물결 속에서  
그날의 울분을 다시 느낀다.

뜨거운 가슴마다  
항일의 불꽃이 타오르고  
나라 사랑의 마음이  
활활활 타 오른다.





부 록



## 부 록

### 순국한 애국지사


강달회(姜達會) : 강달회는 원주 소초면 둔둔리 출신으로 횡성 천도교를 다녔으며 당시 51세로 만세운동에 앞장섰다가 일본 헌병의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하영현(河永賢) : 하영현은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 출신으로 1919년 3월 27일 횡성만세운동을 이끈 강만형 애국지사가 일본 헌병에 체포되자 이에 격분하여 4월 1일 횡성만세운동을 벌이던 중 순국했다(2014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전한국(全漢國) : 전한국은 횡성읍 읍하리에 살았으며 당시 수로공부(水路工夫)로 일하고 있었으며 앞장서 독립만세를 외치다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강성순(姜聖順1893-1919) : 강성순은 횡성군 우천면 법주리 사람으로 일본 헌병의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순국하였다.(1977년 대통령표창 추서)

김치정(金治正) : 김치정은 갑천면 매일3리 잔골마을에서 한문서당을 마련해놓고 10여명의 문하생을 두고 한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유생이었다. 스스로 참가하는 수많은 군민들이 횡성읍내 장터로 모여들 때 김치정도 제자 신건수를 대동하고 횡성으로 와서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김치정은 무차별 난사하는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지만 잡히지 않으려고 그래도 현장에서 기어나와 순국, 그들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제자 신건수는 총소리에 놀라 어떻게 피신을 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잔골마을로 김치정



의 사망소식이 전달되어 마을사람들에 의하여 몰래 운구 일경의 눈을 피해 장사를 지냈다.

김치정이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또 순국한 사실은 당시 일본 헌병이 두려워 남들에게 숨겨야 했으며 그 업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신건수의 증언에 의하여 밝혀졌지만 보훈의 대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김치정처럼 총상을 입고 몰래 집에 가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철저히 숨기고 비밀로 했기 때문에 알 길이 없다.

### 수형(受形)애국지사

최종하(崔宗河1877-1922) : 황성 영영포리 살던 사람으로 일찍이 천도교에 몸담아 황성 대교구장으로 황성 3.1운동을 이끈 분이다. (징역 6월)

김인경(金麟卿) : 황성군 안흥면 상안흥리 사람으로 서당훈도였으며 안흥리 사람들을 동원하여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징역 8월)

추병륜(秋秉倫) : 원주 소초면 교항리 출신이며 당시 45세로 황성천도교 교인으로 만세운동 연락 책임자로 활약하였다.(징역 6월)

정해경(鄭海璟) : 황성군 황성읍 내지리 사람으로 감리교인들을 이끌고 앞장서 만세를 부르며 시위하였다.(징역 1년 6월)

김성서(金聖西) : 영월군 양변면 주천리에 살았으며, 당시 68세의 천도교인으로 장사꾼을 가장하여 황성군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군중을 동원, 만세운동을 추진하였다.(징역 1년 6월)



김윤신(金允信) :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출신으로 3.1운동 때 장사꾼으로 가장하여 붓짐을 지고 물건을 파는 척 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만세운동의 참여를 유도하고 격려하는 등의 활약을 하다가 만세운동에 앞장서서 참여하였다.(징역 8월)

김윤배(金允培) : 황성군 갑천면 매일리 출신으로 황성 천도교인이었다. 매일리 주민을 동원하여 솔선하여 만세를 불렀다.(징역 8월)

조상렬(趙常烈) : 황성군 안흥면 하산전리 출신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크게 활약하였다.(징역 8월)


김연의(金演儀) : 황성군 안흥면 가천리 출신이며 당시 21세의 천도교인으로 만세운동 주동자 중 한 사람이다.(징역 6월)

천선재(千善才) : 황성군 안흥면 안흥리 출신으로 영월군에서도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징역 1년)

이기순(李奇順) : 황성군 둔내면 자포곡리에 살고 있었으며 잡화상인으로 둔내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하였다.(징역 8월, 2012년 대통령표창 추서)

이유태(李裕泰) : 공근면 오산리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 여러 사람에게 만세운동을 권유하였다.(징역 8월)

김순서(金順瑞) : 황성군 안흥면 상하가리 출신으로 4.1만세운동에 앞장서서 만세를 불렀다.(징역 8월)



전성수(全聖洙 1886-1962) :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체포되었다.(징역 8월, 2013년 대통령표창 추서)

### **비(非) 서훈(敍勳) 애국지사**


윤동선(尹東先) : 황성 영영포리에 살고 있었으며 당시 25세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총상으로 부상을 당하였다.

최양옥(崔養玉) :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거목 최양옥지사는 황성군 갑천면 화전리 출신으로 당시 서울 중동중학교 학생으로 서울에서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고향 황성으로 내려와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체포 압송 도중 탈출, 국내외에서 독립군 자금 모금 등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쳤다. 황성 3.1운동을 주도하였지만 곧 탈출하였기 때문에 재판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황성 3.1운동의 공식 기록은 없다. 그러나 그 후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17년의 옥고를 치르는 등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국민훈장 독립장 추서)

최동수(崔東壽) : 황성 읍하리에 살던 청년회원으로 4.1만세운동에 참여하여 군중을 해산시키려던 고지마료(小島了)헌병 상등병을 우천면 두곡리 김진대 노인과 함께 말에서 끌어내려 구타하고 탈출,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만주를 드나들었다.

김진대(金振大) : 우천면 두곡리 사람으로 일본헌병을 말에서 끌어내려 담뱃대로 때리며 호령하였다.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탈출, 만주로 갔다.

김명기(金明起) : 김진대의 아들로서 만세운동 추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일본헌병을 피하고 독립운동을 계속하고자 만주로 망명하였다.



탁영재(卓英才) : 횡성 감리교인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탈출, 항일비밀결사 철원애국단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1995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위창래(魏昌來) : 당시 횡성 영영포리 구장이었다. 그는 당시 많은 친일 구장과는 달리 이 마을에서 있었던 3.1만세운동의 계획, 추진의 비밀을 일본 헌병들로부터 발각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며 만세운동의 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정두철(鄭斗澈) : 횡성 읍하리 출신으로 만세운동의 선봉에 서서 독립만세를 가장 먼저 외치며 만세운동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조흥열(趙興烈) : 횡성 읍하리에서 쌀가게를 하고 있던 그는 쌀가게를 수리하려고 준비하였던 서까래 등 목재를 군중들에게 나누어주며 만세운동을 독려하고 선봉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김순이(金順伊) : 1878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20세가 되던 1898년 10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박영화와 결혼, 횡성에서 살았다. 30대에 남편과 사별하여 남매를 키우면서 한치고개에서 주막을 차려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어 황소아줌마로 불렸다. 자신이 운영하는 주막을 독립투사의 모의장소로, 또 훈포이 모은 돈을 독립운동자금으로 제공하였으며 만세운동 당일에는 군중들을 규합, 앞장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윤석환(尹錫煥) : 윤태환의 형으로 횡성 읍하리에 살았으며 배후에서 횡성 3.1운동을 지도, 지원하였다.





이동구(李洞九) : 횡성군 공근면 매곡리에 살았으며 만세운동 당시 태극기를 만들어 돌리며 공근면민의 참여를 독려했고 면민들과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채일(李采一) : 횡성 천도교 출신으로 서울 천도교 본부에 근무하면서 횡성 3.1운동에 독립선언서 알선 등의 지원을 하였고 서울의 만세운동 정보를 제공하였다.

횡성의 4.1만세운동은 참여인원 1300명의 일제의 보고자료에 보듯이 많은 사람의 삶이 파탄에 이르는 희생을 무릅쓰고 앞장섰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치열했다. 만세 당일에는 무차별 사격으로 즉사한 사람, 중상자, 경상자, 피체된 사람, 탈출한 사람, 고문을 받은 사람, 태형에 처해지는 사람 등 아수라장이었다.

총에 맞아 순국한 사람,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사람은 일제의 기록, 재판기록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독립운동 애국지사로 인정받았지만 태형을 받은 수많은 사람, 탈출하여 외국으로 망명한 사람, 몸을 숨겼던 사람은 그들의 기록에서 빠져 크나큰 공헌에도 불구하고 서훈에 빠져있으며 새로운 증거 제시로 애국지사로 부각되기에는 세월이 너무 흘러 증거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여기 열세 분을 비 서훈자로 소개하였지만 이 또한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 횡성 3.1운동과 가족의 수난

둔둔리 출신 강도영 의병장은 청일면 춘당고개에서 전사하였으며 그의 아들 강만형은 3월 27일 만세를 부르다 붙들려 고문당한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다 29세의 꽃다운 나이에 순국하였다. 한편 강도영의 막내삼촌 강달회는 4월 1일 총탄에 맞아 순국하였다.

우천면 두곡리에 살던 김진대, 김명기 부자는 4월 1일 앞장 서서 만세를 부르다

검거 직전 탈출하여 만주로 망명, 독립운동의 가시밭길을 걸었다.


탁영재는 황성감리교인으로 3월 27일 만세운동에 앞장섰다가 탈출, 항일비밀결사 철원애국단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1920년초 발각됨으로써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다. 그의 동생(탁연복씨 부친) 또한 장날 형을 따라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관공서와 시내를 돌며 시위에 참가하였다. 사촌 탁영의는 광복군으로 활동하였다. 탁연복씨 모친은 10대 시절 양평 용머리에서 전 남편과 함께 치열하게 항일운동을 하다 남편은 총검에 찔려 즉사하고 자신은 시모와 함께 미류나무에 거꾸로 매달리는 고초를 겪었다고 회고하였는데 아들 탁연복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어릴 때부터 선친께서 당신의 지난날 산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서 민족정신을 뿌리깊게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 큰아버지 탁영재 장로께서는 기미년 3.1운동 때 감리교회 교인들 주축으로 시위를 주도하셨고 그 후 철원애국단에 가담하여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시다 붙잡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신 독립투사요, 독립운동가셨다.

선친으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큰아버지가 권총을 휴대하고 상해임시정부로 잠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왜경들이 큰아버지택에 들이닥쳐 천장과 벽장 등을 샅샅이 뒤져 찾으려 했으나 권총을 발견하지 못한 채 왜경은 그냥 철수하였다고 한다.(뒤뜰 석류나무 밑에 묻어 두었다고 함)

오촌되는 탁영의 아저씨는 장준하선생과 같이 김구선생 밑에서 광복군으로 활약하셨고 선친께서도 황성을 장날, 시장통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큰아버지를 따라 관공서와 시내를 돌며 시위에 참가하셨다.

나의 어머니 박성준은 평안남도 박촌 출신으로 경기도 양평군 용머리에 이사와 살면서 19세 권씨(남편)와 함께 동네 마을 뒷동산에 상여 보관하는 곳집을 모이는 장소로 정하고 곳집에 감추어 두었던 태극기를 동네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하다가 권씨는 왜경 총에 맞아 시위현장에서 쓰러져 사망(용머리 주동인물)하였고, 어머니는 도망치다 왜경에게 붙잡혀 미류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못매를 당했다고 한다.

(남편 권씨가 순국하자 시부모의 권유로 탁씨 가문으로 재가하게 됨)

### 강성순 의사의 가족들의 수난

강성순 의사가 만세를 부르다 일제 총탄에 맞아 순국한 때는 27세의 젊은 나이였다. 가족으로는 노부모와 처, 그리고 7세의 아들 강인구만 남았었다. 졸지에 가장을 잃어버린 가족들은 살길이 막막했고 계속되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 모진 고초를 겪으며 살았다. 그 후 처는 아들을 남겨두고 원주로 개가하였고 아들은 조부모의 손에서 어렵게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어 2남2녀를 두었지만 32살에 처와 아이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후 그의 아내는 막내아들을 데리고 개가하였고 두 딸은 서울 남의 집으로 보내졌으며 큰 아들은 학교도 못가고 남의 집을 전전하다가 11살부터 머슴살이를 하였다.

늘 성실했던 그는 17세에 결혼하여 6녀1남을 낳았고 남들처럼 공부는 제대로 못시켰지만 모두 반듯하게 키워 출가 시켰다고 한다.

친일파의 자손들이 모두 부를 누리고 땡땡거리며 살때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야 했던 어두운 역사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이제라도 우리는 그 후손들을 보살펴주고 따뜻한 위로와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 집필을 끝내면서...

삼일독립만세운동은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의로운 봉기였으며 남녀노소 빈 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이 함께 전개한 자랑스런 우리 민족의 의로움의 발로였다.

거국적으로 일어난 이 운동에 200여만의 군중과, 1500번의 집회, 공식기록된 사망자만 7500여명, 부상자 수만명... 국내뿐만 아니라 연해주, 간도, 용정, 북간도에 이르기까지 그 불씨가 번졌으니 이 운동의 과정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목숨 걸고 쓴 가장 빛나는 눈물의 서사시(敍事詩)가 아니겠는가.

우리 횡성은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하게 만세운동을 전개한 곳으로 1919년 3월 27일, 4월 1일, 4월 2일, 4월 12일... 수많은 군중이 운집하여 만세를 부른 곳이다. 특히 4월 1일 횡성 장날 전개한 만세운동은 왜경의 상부 보고에 1300여명의 군중이 운집했다고 기록했는데 고증에 의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전개했다고 한다. 왜경의 총탄에 5명의 지사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지만 불붙는 민족자존의 의기를 어찌 꺾을 수 있었으랴. 횡성만세운동의 여파는 기폭제가 되어 강원도 전역으로 퍼져 나갔고 계속되는 의병 활동 및 독립군의 활동으로 전개되어 드디어 광복의 날을 맞았으니야, 선열들의 그 값진 희생과 애국충정의 마음을 어찌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집필을 하면서 나는 횡성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다. 산천마다 골골마다 서리어 있는 눈물겨운 애국의 흔적과 불굴의 항일정신 그리고 서로 돕는 두터운 협동정신은 우리 군민의 자긍심이 되어왔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횡성만세운동 때 참여하여 고난을 당했으나 그 실적이 기록에 남지 않았거나 일제의 보복이 두려워 만주로 떠나간 사람들에게 대한 서훈(敍勳)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더 조사 발굴하여 이분들의 서훈을 찾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 작품 집필을 위해 여러 차례 자문과 고증자료를 준비해 준 박순업 문화원장님과 사진 자료를 준비해 주신 횡성군청 홍보팀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집필자 김성수 시인

### 참고 문헌 및 자료

횡성군지-횡성군

횡성민족운동사 - 횡성문화원

횡성 3.1운동과 주도인물 재조명 - 횡성문화원

횡성과 3.1운동 - 조동걸

한국독립운동사 - 국사편찬위원회

\*고증 : 김순배, 안춘자, 전봉선



## 김성수 시인 문단(文壇)약력

\*1944년 강원도 횡성출생  
횡성중, 원주고, 춘천교육대학교 졸업

\*조선일보신춘문예, 신춘평화문학상  
월간문학 신인상 당선으로 등단함.

\*창주문학상, 원주향토문화상, 치악예술상  
평화문학상, 이육사문학상, 강원문학상,  
강원예술상, 강원도문화상, 강원시조문학상  
자랑스런 원고동문상, 시조발전 공로상,  
한국예총 문화예술대상  
동곡상(문화예술부문)수상.

\*저서 : 바람에 기를 올리다 외 시집 17권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시작품 수록됨

\*강원문협 자문위원, 원주문협 고문  
현재 원주시교육청 문학영재반 지도강사  
횡성문화원 회원

향토사료 제33집  
횡성 3.1만세운동 서사시

아.1919 삼일의 불길

인 쇄 | 2018년 12월

발 행 | 2018년 12월

발행인 | 박순엽

편저자 | 김성수

기 획 | 민준식

발행처 | 횡성문화원 T.033-343-227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3로 6

인쇄처 | 서원기획 T. 033-343-2404